

수원화성 옛 물길 수변시설 복원계획

A Study on restoration of old waterways in Suwon Hwaseong Fortress

2015

연구진

연구책임

● 안국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권준형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수원 신읍치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물길은 크게 세 곳이 있다.

‘사근천·대천(현 수원천)’은 광고산에서 발원하여 성내를 관통하는 물길로, 남쪽으로 흘러 대황교동 부근에서 현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수원화성 내로 유입되는 물길로서 수원화성의 배수체계 및 가로계획, 공간구조 등에 영향을 미쳤다.

‘진목천’은 광고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만석거로 모이는 하천으로, 남서방향으로 흘러 현 서호천과 합류한다. 수원화성 북쪽 대유평의 운영을 위해 축조한 제언인 만석거와 관계있는 물길이다. 현재 발원지에서 만석거까지의 하천은 모두 복개되었다.

‘현 서호천’은 수원 북쪽에서 발원하는 물길로, 만석거에서 흘러나온 물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평리동 일대에서 현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이 일대의 관개를 담당한 축만제와 관계된 물길이다. 이 물길들은 수원화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원화성의 수체계와 관련된 주요 시설로는 화성 내 배수체계를 담당했던 수문, 은구와 여기에 연결된 성내 연못, 그리고 도시의 운영과 관계된 성 밖의 대규모 수리시설 등이 있다. 북수문과 남수문은 복원·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북·남은구와 북·남지는 복원되지 않았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이러한 수변 시설의 복원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복원되지 않은 북은구와 북지, 남은구와 상·하남지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수원화성의 배수체계를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북은구는 유구의 레벨이 기정비된 성벽과 차이가 있고, 남은구는 시가화로 성벽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 은구와 연

결된 복지와 남지는 식수 저장, 배수량 조절, 경관 요소 등의 기능을 했으며, 복원시 화성의 경관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기에 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은구와 함께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옛 모습과 규모와 위치 등에 변화가 있으나 굳이 옛 모습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우와 퇴적 등에 의해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소성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과거와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과업 개요	3
제2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18세기 신도시 조성과 배수시설	9
제1절 역사도시 수원	9
제2절 수원의 옛 물길과 읍치의 입지	14
제3절 화성을 관통하는 하천	19
제3장 수원화성의 운영과 저수시설	35
제1절 성내 저수시설	35
제2절 성외 제언 축조	45
제4장 결론	61
제1절 물길 및 수변시설의 유무형적 가치	61
제2절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복원사업	66
참고문헌	73

표 목 차

<표 2-1> 수문, 준천 관련 작업	22
<표 2-2> 남은구 관련 기록	27
<표 2-3> 북은구 관련 기록	29
<표 3-1> 성내 연못 조성 개요	35
<표 3-2> 남지 관련 기록	38
<표 3-3> 북지 관련 기록	40
<표 3-4> 동지 관련 기록	42
<표 3-5> 신읍치 이전 후 조성된 제언 개요	48
<표 3-6> 만석거 관련 기록	50
<표 3-7> 영화정 관련 기록	51
<표 3-8> 축만제 관련 기록	54
<표 3-9> 만년제 관련 기록	56
<표 3-10> 남제 관련 기록	58
<표 4-1> 주요 사료에 기록된 다리	63
<표 4-2> 「수원화성 르네상스전략 사업」 개요	67
<표 4-3> 물과 관련된 수원화성 시설물 현황과 복원 가능성	69

그림 목 차

<그림 2-1> 「청구도」 수원지방도(1834)	10
<그림 2-2> 「수원부지도」(신읍치 移轉 이후)	13
<그림 2-3> 「대동여지도」 수원지방도(1861)	13
<그림 2-4> 「지나조선고지도」 수원지방도(1623)	15
<그림 2-5> 「동여비고」 수원지방도(1682)	15
<그림 2-6> 「동국여도」 수원부(1800)	15
<그림 2-7> 「팔도군현지도」 수원(1760)	16
<그림 2-8> 「대동여지도」 수원지방도(1861)	16
<그림 2-9> 옛 물길과 하천명 추정	17
<그림 2-10> 1914년 지형도에 표시한 신읍치 입지가능구역	18
<그림 2-11> 용연과 화홍문	19
<그림 2-12> 북수문(화홍문) 안쪽 ‘대천’ 모습	21
<그림 2-13> 북수문외도	23
<그림 2-14> 上 : 일제강점기 화홍문, 下 : 현재 화홍문	23
<그림 2-15> 문루가 멸실된 화홍문	24
<그림 2-16> 화홍문 복원공사 사진	24
<그림 2-17> 1976년 화홍문 동측면도	24
<그림 2-18> 화홍문 복원중단면도	24
<그림 2-19> 「북수문외도」 부분	24
<그림 2-20> 左 : 쇠살문, 右 : 쇠사슬	24

<그림 2-21> 남수문 외도	25
<그림 2-22> 남수문 내도	25
<그림 2-23> 남수문 단면 및 입면도	26
<그림 2-24> 2012년 복원된 남수문	26
<그림 2-25> 수원화성의 배수 체계	26
<그림 2-26> 「은구도」(부분)	28
<그림 2-27> 상 남은구의 위치	28
<그림 2-28> 복원정화사업시 남은구 부근의 측량도	29
<그림 2-29> 북은구 위치(불명확)	30
<그림 2-30> 북은구 발굴 모습	31
<그림 2-31> 1974년 북은구 석축 하부	31
<그림 2-32> 1974년 북은구 현황도	31
<그림 2-33> 북은구 발굴 모습	31
<그림 2-34> 북은구·북지가 포함되지 않은 복원계획	32
<그림 2-35> 복원평면도	32
<그림 2-36> 복원종단면도	32
<그림 3-1> 「화성전도」에 표현된 성내 연못	36
<그림 3-2> 「화성도」에 표현된 성내 연못	37
<그림 3-3> 남지 「화성전도」	39
<그림 3-4> 남지 「화성도」	39
<그림 3-5> 은구도	39
<그림 3-6> 남지	40
<그림 3-7> 남지(현재 중첩)	40
<그림 3-8> 북지(화성전도)	41

<그림 3-9> 북지(화성도)	41
<그림 3-10> 북지	41
<그림 3-11> 북지(중첩)	41
<그림 3-12> 현 수원천 동쪽 부분	43
<그림 3-13> 동지1(화성전도)	44
<그림 3-14> 동지1(화성도)	44
<그림 3-15> 동지2(화성도)	44
<그림 3-16> 신읍치 이전 이후 조성된 제언	45
<그림 3-17> (18세기 후반)에 표현된 만석거와 축만제	47
<그림 3-18> 「화성도」의 만석거	48
<그림 3-19> 만석거 수갑전도	49
<그림 3-20> 만석거 수갑분도	49
<그림 3-21> 上 : 제방 안, 下 : 제방 밖	49
<그림 3-22> 만석거	51
<그림 3-23> 만석거 (현재 중첩)	51
<그림 3-24> 영화정도	52
<그림 3-25> 만석거와 영화정	52
<그림 3-26> 영화정 원위치 추정	52
<그림 3-27> 현 영화정 위치(현재 중첩)	53
<그림 3-28> 송죽리 408번지	53
<그림 3-29> 향미정과 서호(일제강점기 엽서)	54
<그림 3-30> 축만제 수문(일제강점기 엽서)	54
<그림 3-31> 축만제	55
<그림 3-32> 축만제(현재)	55

<그림 3-33> 축만제(현재중첩)	55
<그림 3-34> 만년제	57
<그림 3-35> 만년제(현재)	57
<그림 3-36> 만년제(현재 중첩)	57
<그림 3-37> 2007년 만년제 제방 절개 모습	58
<그림 3-38> 2012년 화성 만년제 유적 원경	58
<그림 3-39> 만년제 피성	58
<그림 3-40> 하수문지	58
<그림 4-1> 1910년대와 현재 물길	62
<그림 4-2> 「여지대전도」 수원부(1700)	64
<그림 4-3> 「해동여지도」 수원부(1735)	64
<그림 4-4> 「해동지도」 수원부(1750년대)	64
<그림 4-5> 「지적원도」에 표시한 주요 옛 다리 위치	65
<그림 4-6> 수원화성 배치도	66
<그림 4-7> 복수문외도	67
<그림 4-8> 화홍문 안쪽 모습	67
<그림 4-9> 화홍문 종단면도	67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과업 개요

제2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과업 개요

- 과업명칭 : 수원화성 옛 물길 수변시설 복원계획
- 과업기간 : 2015.3.1~2015.11.30
- 과업성격 : 수원시정연구원 2015년도 정책과제

제2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다가오는 2016년은 수원화성이 축조된 지 2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수원 시에서는 2016년을 ‘수원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수원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원화성의 유무형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지역의 옛 물길과 수원화성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水原’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불리어지던 것으로 그 이전 시대의 ‘모수(茅水)’, ‘수성(水城)’, ‘수주(水州)’ 등의 명칭과 더불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물길의 원형을 확인하고, 수원 신읍치 이전 및 도시 운영과 물의 관계를 살핀다.

수원화성 안팎의 물길은 계획도시 화성의 공간구조와 입지요소로 밀접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현재 상당수가 복개되거나

변형된 상태이며 화성행궁 앞 금천(禁川) 등 일부만 복원된 상태이다. 수원 내 옛 물길과 현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조사·분석되어 있으나, 그간 수원화성과 성내·외 물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부족하였다. 수원화성 안팎의 물길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수원화성과 물길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수변시설의 원형, 위치 등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물길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을 학술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수원화성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 수원화성 안팎 물길의 가치 재조명
- 옛 물길과 수변시설 원형고증
- 물길 회복·수변시설 복원계획 수립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수원 화성 내부의 수원천과 구거(溝渠) 주변 지역 · 수원 화성 외부 하천 일부(수원천, 영화천, 조원천 등)
시간적 범위	· 수원 화성이 축조된 정조연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기 이전 시기인 20세기 초반을 대상으로 함(사진, 지적도 등 자료 풍부)
내용적 범위	· 수원 화성의 조성·운영 등과 관련된 성내·외 수변시설 고증 · 옛 물길 회복 및 수변시설 복원 계획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화성성역의궤』, 『읍지』 등의 사료 조사
- 기초자료 조사·분석 : 「지적원도」, 「토지조사부」 등 지적자료, 사진, 지도 등 비문자 자료
- 옛 물길 현황조사·분석 : 주요 물길과 구거의 현황 조사·분석
- 복원계획 수립 :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원계획 수립

제2장

18세기 신도시 조성과 배수시설

제1절 역사도시 수원

제2절 수원의 옛 물길과 읍치의 입지

제3절 화성을 관통하는 하천

제2장 18세기 신도시 조성과 배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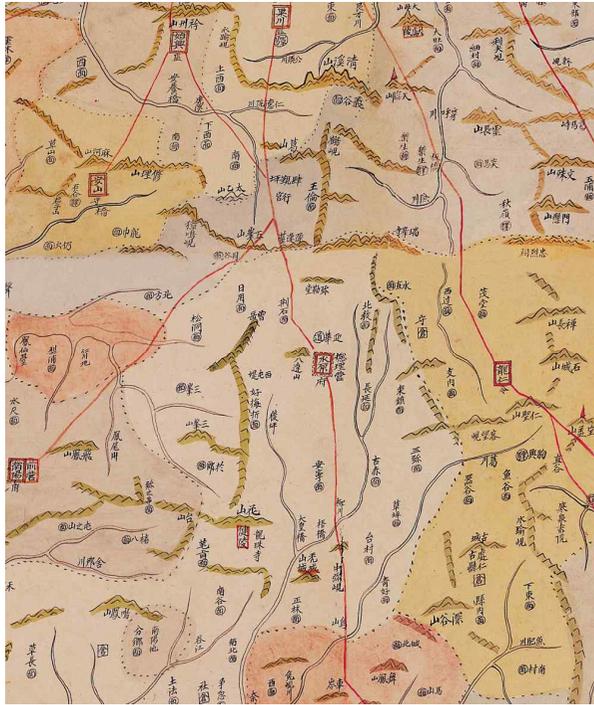
제1절 역사도시 수원

1. 구읍치 시대

서둔동에서 초기철기 시대의 주거지 터가 발견되는 등 수원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마한 54개국 가운데 현 수원 지역에는 모수국(茅水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수국은 수원 구읍치 일대로 광개토태왕비문의 백제 정벌 58성 가운데 모수성으로 생각되는데, 牟는 ‘보리’로 벌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명이 ‘벌판’, ‘물’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 수원시와 화성군 일대가 넓은 벌판과 서해바다의 침식으로 많은 늪지대를 형성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제에 속하였다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남하하면서 고구려에 속한다. 이때 지명이 매홀, 수성이라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에 속하여 수주·수성군이라 하였다. 삼국시대의 성터로 여기산성, 당항성, 독산성 등 다수의 산성이 남아 있다.

940년(고려 태조23) 수성군은 수주로 승격되었다가 983년(성종2) 양주목 관할이 되었다. 995년(성종14) 주요 주군에 군사기관을 설치하면서 수주에는 도단련사(都團練使)가 설치되었다. 1005년(목종8)에 혁파되어 1018년(현종9) 지방관이 부임하는 지수주사(知水州事)로 회복되었다. 1067년(문종21) 남경 관할 하에 들어갔으나 다른 주와 달리 7개의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1101년(숙종6) 남경 건설이 일단락되면서 영군현인 안남도호부 수주로서 남경에 소속되었다. 1271년(원종12) 수주는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310년(충선왕2) 수주목이 수원부로 격하되었다.

조선조에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한 뒤, 신도읍 경영에 부합하는 경기지역 개편에 착수하여 1395년(태조4) 경기로 편입되었다. 1413년(태종13)에 수원도호부로 개칭되었는데, 목(牧)보다 낮고 군(郡)보다 높은 행정단위로 고려 때의 군사적 의의보다는 일반행정구획의 하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 수원도호부는 소속현5개, 향 3개, 부곡 4개, 처 5개, 장 3개를 관할하였으



〈그림 2-1〉 「청구도」 수원지방도(1834)

며, 사방의 행정 경계는 동쪽 용인까지 17리, 서쪽 쌍부 팔라곶까지 55리, 남쪽 충청도 평택현 유지두까지 65리, 북으로 과천까지 21리였다. 이보다 80여년 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속현 2개, 향 3개, 부곡 7개, 처 7개, 장 3개를 관할하였으며, 행정 경계는 동쪽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서쪽 남양부 경계까지 20리, 남쪽 충청도 평택현 경계까지 50리, 북쪽 과천현 경계까지 39리로 관할구역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

1) 이상의 내용은 『수원시사 상:역사속의 수원』(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6)의 165~194 쪽을 정리한 것이다.

2. 수원 신읍치 이전과 화성성역

1789년(정조13) 7월 11일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永祐園)을 천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조 즉위 초부터 묘를 이장하려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예로부터 능원 입지의 길지로 꼽히던 세 곳 가운데 하나인 수원읍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원읍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이 일을 맡을 감사와 지방관을 임명하였다.²⁾ 이주 대상 민가는 2백여 호였으며, 나랏돈 10만 냥을 지원하여 이전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³⁾ 7월 15일 옮겨야 할 읍소재지가 팔달산 밑으로 결정되었다.⁴⁾

수원부사 조심태는 팔달산 아래 새 터전에 길을 닦고 관청을 짓기 시작하여 행궁을 비롯한 관청 건물 일부와 향교, 사직단 등이 지어졌다. 정조가 현릉원(顯隆園)에 참배하러 내려온 1789년 10월 초에 이미 고을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으나, 관청이 모두 완성된 것은 1790년 5월의 일이었다. 1790년 7월 당시 주민 수는 총 719호였는데, 원 거주민 63호에 옛 읍치와 부근에서 옮겨온 세대 515호와 타 지역에서 옮긴 세대 141호로 구성되었다.⁵⁾ 옮긴지 40여 년이 지난 1831년(순조31) 성내의 세대는 1,341호로 인구가 크게 늘었다.⁶⁾ 1793년 1월 12일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켰다.⁷⁾

수원부의 읍치를 새롭게 한 데에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구읍치의 뒷산으로 이전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속에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 했던 정조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18세기는 정치에도 경제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한양의 상인 세력이 정권의 핵심세력인

2) 『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1789) 7월 11일 1번째 기사

3) 『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1789) 7월 13일 1번째 기사

4) 『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1789) 7월 15일 1번째 기사

5)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20~24쪽, 26~28쪽

6) 『화성지』, 1831, 권1, 「호구」(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 읍지』, 2006)

7) 『정조실록』 권37 정조17년(1793) 1월 12일 2번째기사

서인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의 거점으로서 화성을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양의 남쪽 교통의 요지에 상업도시를 새로 건설하여 배후도시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⁸⁾

수원은 한양과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우로(右路)의 길목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고을이었으나, 수원 구읍치는 도시 북동쪽의 화산(花山)과 남서쪽의 홍법산(弘法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왕래와 물자 유통의 중심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⁹⁾ 상업도시에 적합하지 않았던 구읍치와 달리 새로 읍진 신읍치는 서쪽의 팔달산 아래 동·서·북 방향이 넓게 개방되어 있고 지형도 평탄하여 큰 길을 내기에 적절하였다.¹⁰⁾

도시가 건설된 후, 화성에 성곽을 쌓아야 한다는 건의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 1790년(정조14) 6월에 부사직(副司直) 강유는 수원읍에 방어시설이 없음을 지적하고, 들 가운데에 위치한 신읍치에 축성의 필요성을 상소하였다.¹¹⁾ 이후에도 몇몇 신하들이 축성을 건의하여 여론이 조성되었다.¹²⁾

성역은 1794년(정조18) 정월에 시작되어 31개월 만인 1796년 9월에 완성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성역에 동원된 인력은 11,820명이고, 경비가 873,520냥에 곡식 1,500석이 소요되었다. 성곽의 둘레는 3,963보 8척이며, 문루와 포루 등을 다 합치면 4,600보로 약 5.743km의 규모이다.¹³⁾

8) 김동욱, 앞의책, 48~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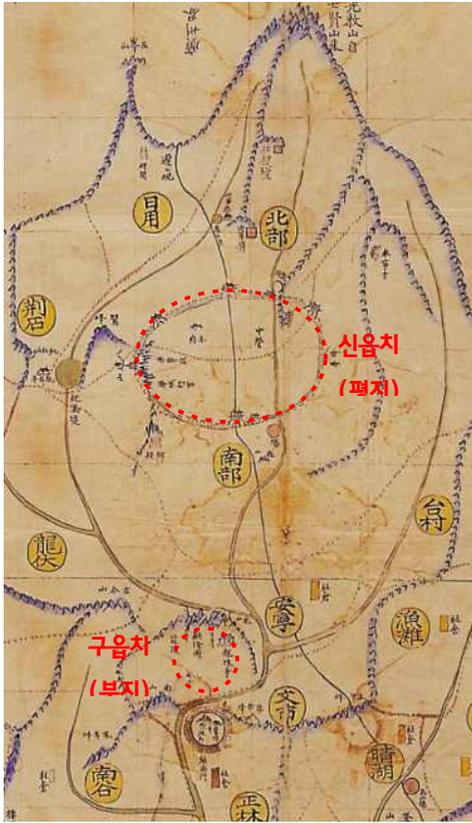
9) 김동욱, 앞의책, 39~40쪽

10) 일찍이 반계 유형원이 교통의 요지로서 수원의 새 읍치 자리로 손꼽은바 있다. 그는 읍치의 규모와 평야가 매우 훌륭하여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지역으로서 안팎으로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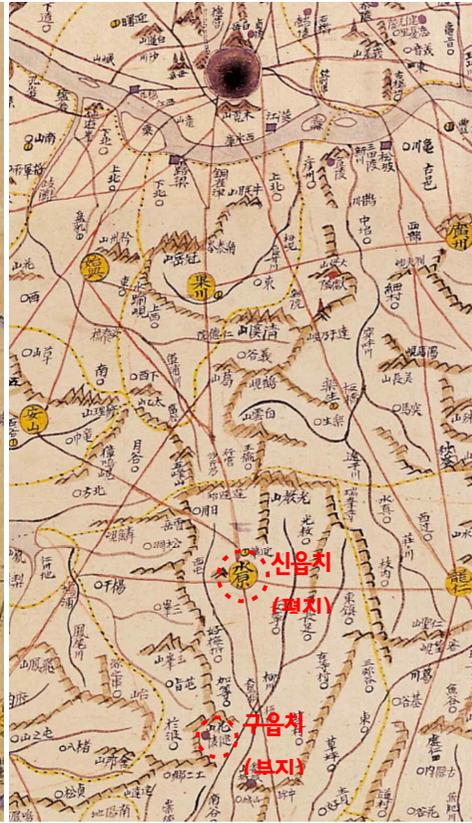
11) 『정조실록』 권30 정조14년(1790) 6월 10일 두번째기사

12) 김동욱, 앞의책, 64쪽

1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7 수원화성』, 2014, 176~177쪽



〈그림 2-2〉 「수원부지도」
(신읍치 移轉 이후)



〈그림 2-3〉 「대동여지도」
수원지방도(1861)

제2절 수원의 옛 물길과 읍치의 입지

1. 수원 일대의 물길

수원 신읍치·구읍치 일대의 주요 물길은 사료와 고지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옛 수원부(군)의 읍치 가운데 신읍치 이후의 것으로는 『화성지』(1831)과 『수원군읍지』(1899)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하천은 수원유수부 관아를 기준으로 북쪽에 3개소, 부 내에 1개소, 남쪽에 4개소, 남서(서남)쪽으로 2개소이다.

위치 (府기준)	명칭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북	사근천	「산천」조 부의 북쪽 15리 일용면에 있다. 곧 광교산 하류이다.	「산천」조 부의 북쪽으로 15리 거리 일용면에 있으니, 바로 광교산의 하류이다.
	진목천	「산천」조 부의 북쪽 10리 일용면에 있다.	「산천」조 부의 북쪽으로 10리 거리 일용면에 있다.
부 내	매향교천	「산천」조 부 안에 있다.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들어온다. 화홍문 석교로부터 성 가운데를 가로질러 남수문 석교로 빠져나간다.	「산천」조 부내에 있으니 물의 근원이 광교산에서 나와 화홍문 돌다리로 흘러 들어와서 성을 횡단하고 남수문 돌다리로 나아간다.
남	상류천	「산천」조 부의 남쪽 5리 남부면에 있다. 곧 매향교천 하류이다.	「산천」조 부의 남쪽 5리 거리 남부에 있으니, 바로 매향교천의 하류이다.
	하류천	「비문」조 이로부터 아래로는 옛 필로이다. 건장동으로부터 5리이다. 길 동편에 표석이 있다. 하류천이라 새겼다. 장정(長亭)이 있다.	「필로」조 여기에서부터 옛 필로이니, 건장동으로부터 5리 거리이며 동편 표석에 하류천이라 새겼다. 장정(長亭)이 있다.
	대향교천	「산천」조 부의 남쪽 15리 안녕면에 있다.	「산천」조 부의 남쪽으로 15리 거리 안녕면에 있다.
	오목천	「산천」조 부의 남쪽 20리 안녕면에 있다. 옛 이름은 오목으로 기유(정조13, 1789)년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산천」조 부의 남쪽으로 20리 거리 안녕면에 있으니, 옛 이름은 오목으로 기유(정조13, 1789)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위치 (府기준)	명칭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남서 (서남)	후평천	「산천」조 부의 서남쪽 15리 용북면에 있다.	「산천」조 부의 서남쪽으로 15리 거리 용북면에 있다.

이중 북쪽에 위치한 사근천은 여러 고지도에 기록이 남아 있어 비교적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현 상광교동 일대 광교산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길로 추정되며, 현 하광교소류지 일대에서 합류되는 물길의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범위는 불분명하다. 이 합류지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흘러 수원화성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향하는 물길은 통틀어 대천(大川)으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대천 가운데 화성 내의 물길을 매향교천으로 칭하였다.



〈그림 2-4〉
「지나조선고지도」
수원지방도(1623)



〈그림 2-5〉
「동여비고」
수원지방도(1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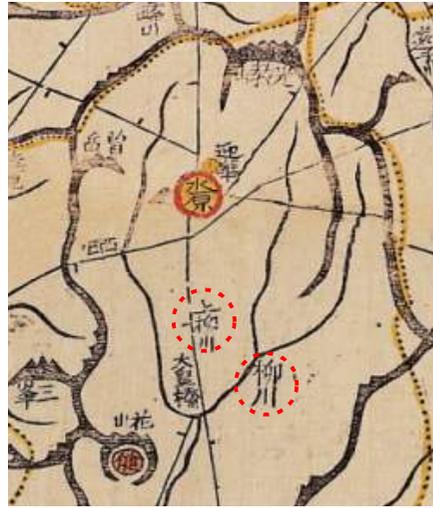


〈그림 2-6〉
「동국여도」
수원부(1800)

이러한 대천은 타 사료에는 유천(柳川)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읍지」의 ‘상류천’과 ‘하류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화성 남쪽 물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디까지가 상류천이고 어디서부터 하류천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현전하는 표석의 위치를 토대로 대략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¹⁴⁾



〈그림 2-7〉 「팔도군현지도」
수원(1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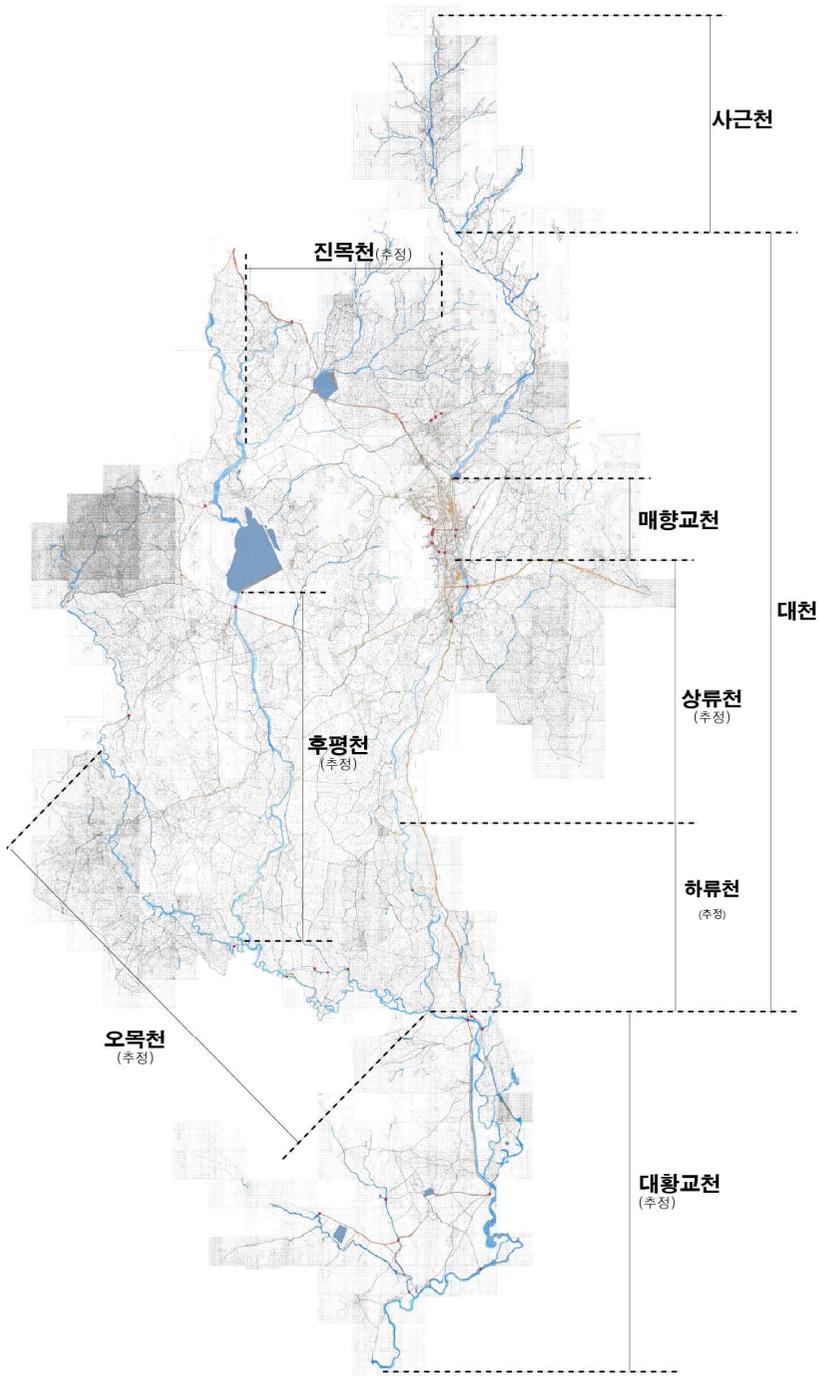
〈그림 2-8〉 「대동여지도」
수원지방도(1861)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하천들은 부 북쪽의 진목천, 남쪽의 대황교천, 오목천, 남서(서남쪽)의 후평천과 오매천이 있다. 진목천은 만석거 부근에 있었던 진목정이라는 정자의 명칭으로 불 때 만석거로 유입되고 흘러나가는 물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 남쪽 방향에 있다고 하는 대황교천과 오목천은 현재 지명으로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황교천은 현 황구지천과 수원천이 합류하는 지점부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오목천은 현 오목천 동과 고색동 사이를 흐르는 현 황구지천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⁴⁾ 후평천은 위치로 볼 때 현 서호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4) 『수원지명총람』(수원시·수원문화원, 1999)의 367쪽에는 ‘상류천’ 표석과 ‘하류천’ 표석 기록이 있다.

15) 기록에는 오목천이 대황교천보다 남쪽으로 5리에 있다고 하여 본 추정과 위배된다, 그러나 당시 측량 수준에 의한 오류·오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현존하는 마을 이름이 보다 신뢰할 만한 근거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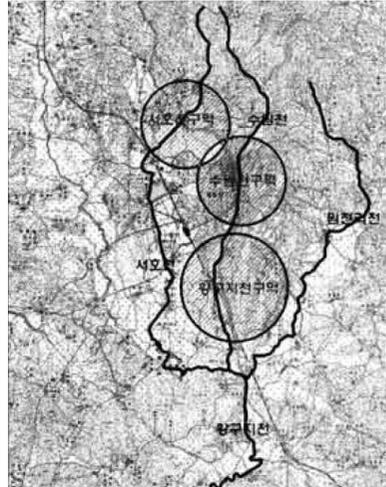
자료 : 지적원도

〈그림 2-9〉 옛 물길과 하천명 추정

2. 신읍치의 입지

수원 신읍치는 현 수원천을 낀 서쪽의 팔달산과 동쪽의 낮은 구릉지 사이 분지에 입지하였다. 수원천은 분지 가운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기 연구에서 현 수원천의 수계가 계획도시의 공간구조와 읍성의 좌향을 결정짓는 입지요소로 활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¹⁶⁾ 화성 건설 당시 도시가 입지할만한 곳은 팔달산을 북쪽에 둔 평지(서호천 유역)과 팔달산을 북으로 둔 구릉지와 평야지(황구지천 유역), 서쪽 팔달산과 동쪽 구릉지대가 형성하는 수원천변 분지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수원천변 분지, 즉 지금의 수원화성 자리가 낙점되었다는 것이다. 서호천 유역은 매우 척박하고 황량한 문제가 있었고, 황구



자료 : 강인애(2011), p.140 인용
 <그림 2-10> 1914년 지형도에 표시한 신읍치 입지가능구역

지천 유역은 산록이 좁고 3개의 물길이 합류되는 저습지대로 도시가 입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수원천변 분지에 입주하게 된 신읍치는 서쪽 팔달산 아래 완만한 경사를 지닌 평탄지가 펼쳐지고 수원천 동편은 낮은 구릉지가 있는 지형특성에 따라, 팔달산을 주산으로 삼고 동향을 취하여 교통의 요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 인해 도로체계는 물길과 연계하여 간선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선로·접근로는 지형의 흐름과 어우러진 자연형 도로체계로 구축되었다. 또한 물길로 인해 주요 시설 구역의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침수 우려가 높은 수원천변 저지대에 시장을 배치하여 개방형 토지이용을 부여하고, 흙방과 초가를 중심으로 한 하층민 거주지가

16) 강인애, 「수계계로 본 수원화성 건설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9, No.4, 2011.12

형성되는 등 도시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축성시에는 용연에 기대어 쌓음으로써 용연에 비보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림 2-11〉 용연과 화홍문

제3절 화성을 관통하는 하천

1. 성내의 하천

성 내에 하천을 관통시키는 것은 조선시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 아니다. 통상 성안에서 발생하는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화성은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¹⁷⁾

화성을 관통하는 광교대천은 축성 이전부터 있었던 자연하천으로 큰비가 오면 자주 범람했었다.¹⁸⁾ 이에 따라 준천시 폭을 넓고 깊게 파야

17) 김동욱, 앞의책, 1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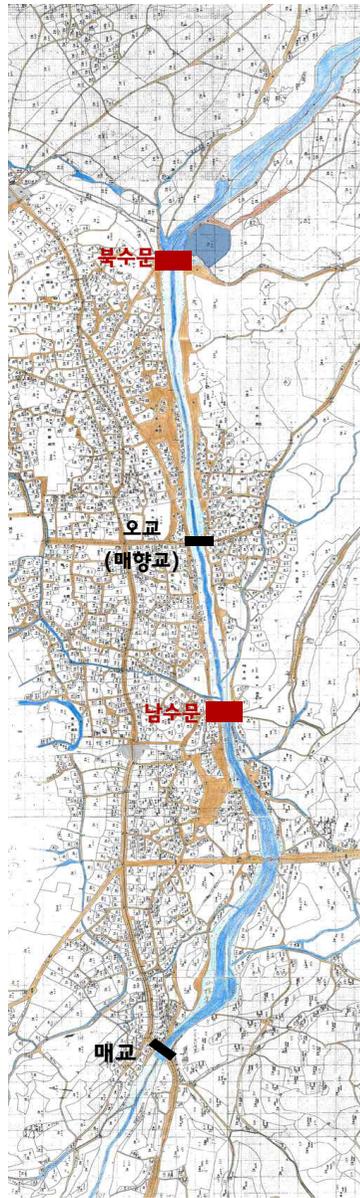
18) 『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 복수문

할 필요가 있었으며, 잦은 준천작업이 불가피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준천작업을 통해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다.¹⁹⁾ 또한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여 빠져나가는 화성은 타 도시보다 배수량이 많았으므로 물이 빠져나가는 남수문의 수문은 북수문(화홍문)보다 홍예를 2개 더 만들어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원도」(1911)를 통해 옛 ‘대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화성성역의궤』에서는 ‘광교대천(光教大川)’, ‘대천(大川)’, ‘구천(龜川)’으로 물길을 구분하였다.²¹⁾

성 밖 광교대천은 광교산 쪽에서 남서방향으로 흘러내려와 용연 앞에서 작은 구거와 합쳐지며, 화홍문을 통과하여 성안으로 흐른다.

성 안 ‘대천’은 남쪽으로 비교적 곧게 흐르다가 남수문 앞쪽에서 동서방향의 작은 구거가 합쳐지는 모습이다.²²⁾ 하천 좌우로 길이 나란히 남수



광교
대천

대천

구천

19) 『화성성역의궤』 권수, 「도설」 개울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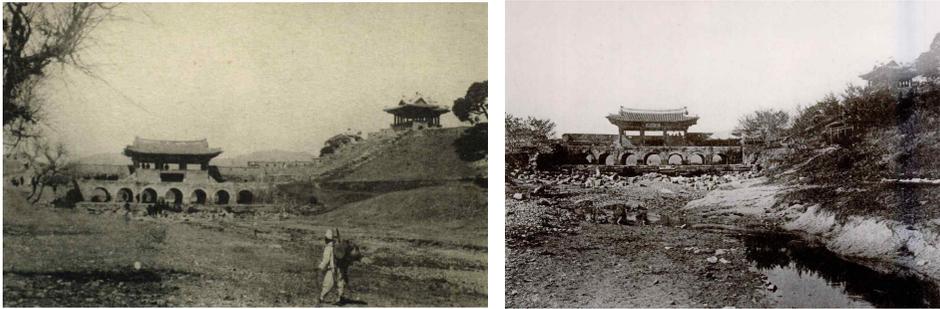
20) 축성 당시 준천한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의 지적도이기 때문에 물길의 형태가 당시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 김동욱, 앞의책, 171쪽

22) 물길은 가운데에 ‘川’으로 점선 표기되어 있으며, 그 바깥쪽으로 둔치가 표현되었다. 측량 당시의 수량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까지 이어진다. 매향교(오교)를 제외하면 하천을 건너는 교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천 유량이 적을 경우 징검다리 등을 이용하여 하천을 건넌 것으로 생각된다.

남수문 밖 ‘구천’은 수문 바깥 쪽에서 2개의 도랑이 합쳐지며, 서남쪽으로 흐른다. 하천을 따라 양쪽에 도로가 매교 부분까지 이어져 큰 도로와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북수문(화홍문) 안쪽 ‘대천’ 모습

2. 준천사업과 수문·은구의 건립

성내에 하천이 들어오도록 계획되면서 물길을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1793년(정조17) 12월 8일, 성역도청(城役都廳)과 별간역(別看役)을 임명하여 남쪽과 북쪽의 성루와 수문의 공사를 나누어 맡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 병사 이유경이 도청으로 임명되고, 별간역으로 전 부사 양훈, 전 군수 박형, 전 현감 정우태가 임명되었다.²³⁾

1794년(정조18) 2월 화성 축성이 시작되면서 성내를 관통하는 물길의 정비가 먼저 착수되었다. 2월 28일 오전8시 경, 물길을 북쪽으로부터 성내로 통과시키는 북수문(화홍문)과 남쪽으로 배출시키는 남수문의 터닦는 일을 시작하였다. 본래 2월 26일로 계획되었으나 이틀이 미뤄졌으며, 물이 넘치지 않기를 비는 고유제를 지낸 뒤 착수되었다.²⁴⁾ 그 다음 달인

23) 『화성성역의궤』 권1, 「계사」 계축년(1793) 12월 초8일

3월에 준천(濬川) 작업을 시작하여 약 한 달 만에 완료하였다.²⁵⁾

작업은 복수문 밖 500~600보 되는 곳부터 시작하여 물길을 서쪽으로 흐르게 하여 용연 옆으로 휘어져 들어가도록 하였다. 대천과 용연 사이에는 제방을 축조하였다. 성내에 들어온 물은 남쪽 방향으로 곧게 흘러 남수문을 통해 나가게 하였다. 성내 물길은 너비를 20여보, 깊이는 반장(丈)~1장 정도로 파냈다. 처음 계획은 남북의 성문과 수문을 지어놓고 나머지 성벽을 쌓아가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남수문은 터만 닦아두고 공사를 미뤄두었다가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공사를 재개하였다.

은구가 축조된 일정에 대해서는 남성, 남치, 북성 등의 공사에 포함된 부속 공사로 보아서인지 『화성성역의궤』에 기록이 없다. 다만 『화성지』(1831)에 남은구와 북은구 모두 갑인년에 뚫었다고 되어 있어 성역이 시작된 1794년(정조18)에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수문, 준천 관련 작업

일 시	내 용	출 처	비 고
1794. 2.28	복수문, 남수문 지을 터를 닦음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추택일시	
1794. 3. 1	도랑치는 일을 시작함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각항일자	
1794. 3.29	도랑치는 일을 마침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각항일자	
1794. 7. 9	복수문의 주춧돌을 놓음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추택일시	
1794.10.13	복수문 입주상량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추택일시	
1794	남은구, 북은구 축조	『화성지』 성곽조	
1796. 1.16	남수문 홍예 완성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각항일자	터를 닦고 공사 중단, 1795.11 재개
1796. 3.25	남수문 공사 마침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각항일자	

자료 : 화성성역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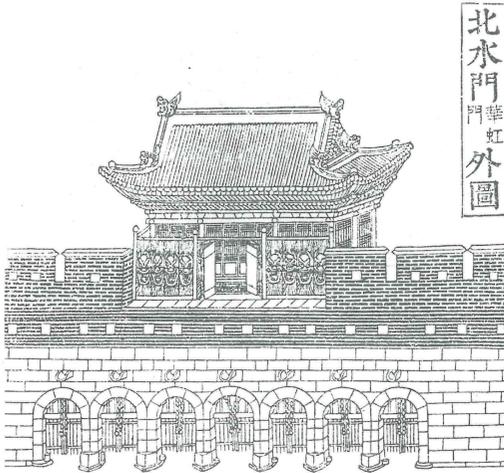
24) 『화성성역의궤』 권1, 「계사」 갑인년(1794) 정월 초4일

25)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추택일시」, 「각항일자」

1) 수문

□ 북수문

북수문은 홍예 수문을 돌로 쌓고 그 위에 다리를 얹은 뒤 그 위에 누각을 세웠다. 홍예는 앞뒤로 돌기둥 4개씩을 세우고 위는 반원형 천장으로 축조했다. 7개 홍예 가운데 중앙의 것은 너비 9자 높이 8자 3치로 하고, 나머지 6개 교량은 너비 8자 높이 7자 8치로 하여 유량을 고려함과 더불어 시각적 안정감을 주었다. 물살을 직접 받는 북쪽 기둥의 하단부는 마름모꼴로 다듬어 물살을 쉽게 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²⁶⁾



자료 : 화성성역의례

〈그림 2-13〉 북수문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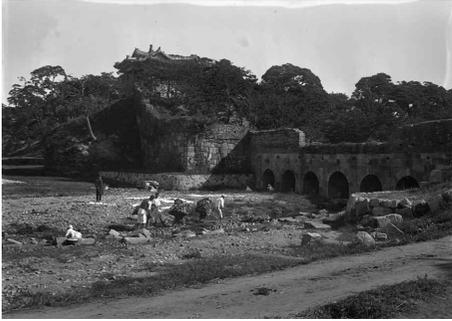
〈그림 2-14〉

上 : 일제강점기 화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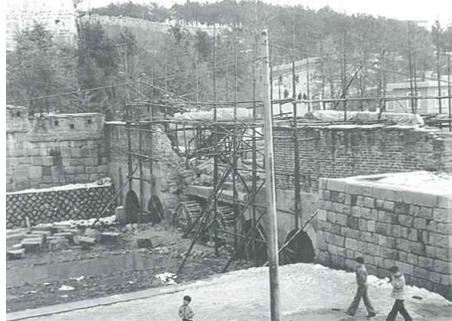
下 : 현재 화홍문

1970년대 복원 시에는 수문의 홍예를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일제강점기에 잘못 복원된 문루를 성벽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수문의 외측에 철책문을 설치했던 둔태석(屯太石)과 장군목(將軍木) 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철책문은 복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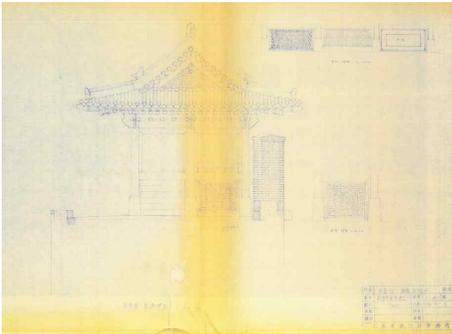
26) 김동욱, 앞의책, 172~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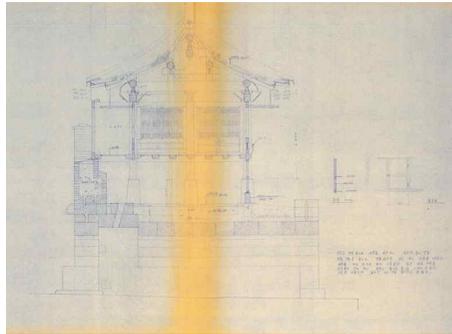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그림 2-15〉 문루가 멸실된 화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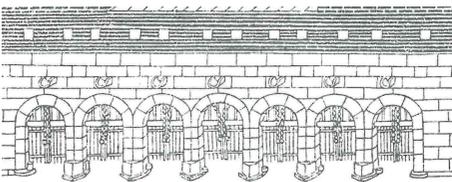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그림 2-16〉 화홍문 복원공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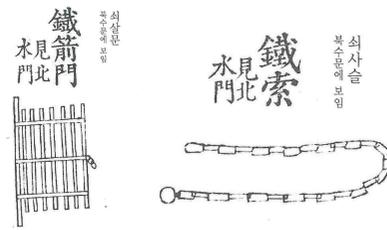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그림 2-17〉 1976년 화홍문 동측면도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18〉 화홍문 복원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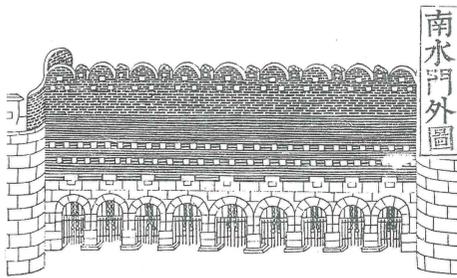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2-19〉 「복수문외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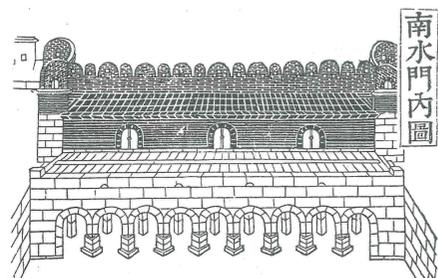
〈그림 2-20〉 左 : 쇠살문
 右 : 쇠사슬

□ 남수문

남수문 터는 북수문과 동일하였으며, 홍예의 구조나 형태는 북수문과 유사하였다. 수원화성으로 유입된 대천의 하류가 빠져나가는 문으로서 많은 물을 배출하기 위해 수문 홍예를 북수문보다 2개 더 많은 9개로 설치하였다. 다리 위에는 누각을 세우지 않고 군사들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도록 장포(長鋪)를 세웠으며, 장포 위로는 여장을 설치하였다.²⁷⁾



〈그림 2-21〉 남수문 외도



〈그림 2-22〉 남수문 내도

건립 후 몇 차례 무너지고 복구하기를 반복하던 남수문은 1922년 홍수로 유실된 이후,²⁸⁾ 1927년 부재 재사용을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철거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²⁹⁾ 1970년대 복원 시 중요한 유적으로 인지되어 복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발굴을 하지 않아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시가화 등의 이유로 복원에서 누락되었다.³⁰⁾ 당시 「단면도·입면도」, 「복원평면도」 등이 그려졌다.

남수문은 2004년 11월 발굴조사를 마치고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9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2009년 복원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차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몇 차례에 걸친 설계자문 끝에 2010년 6월 남수문 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6월 복원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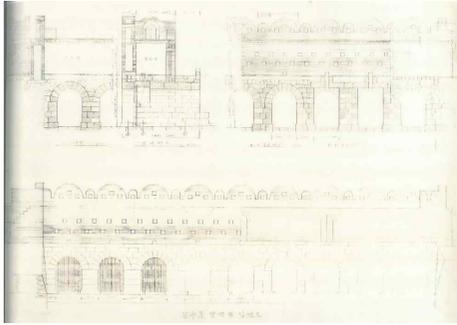
27) 김동욱, 앞의책, 173쪽

28) 「201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29) 「세계일보」, 2007년 8월 16일 기사, “수원시 학예연구사” 화성 남수문 일제가 훼손“

30) 경기도·삼성건축, 『수원성복원정화지』, 1980,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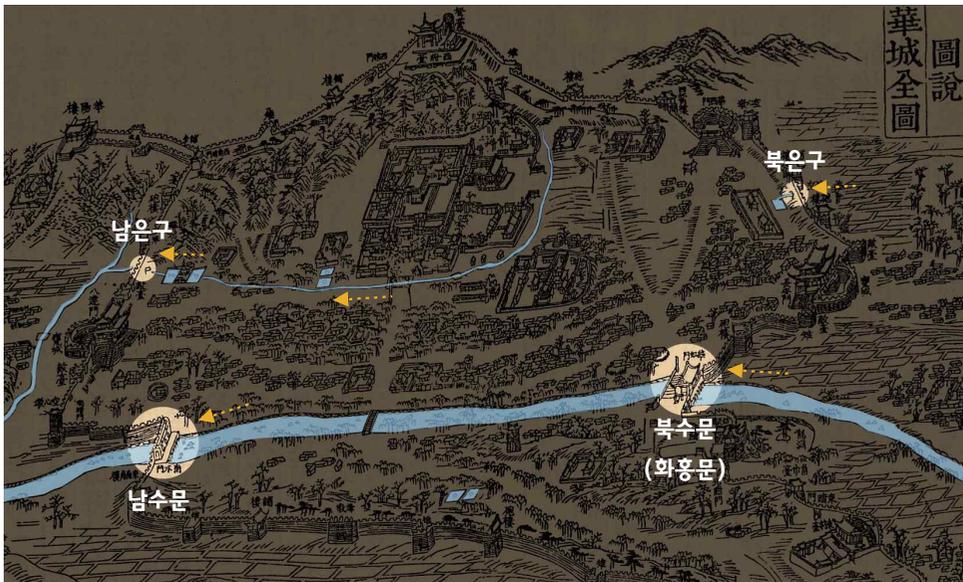
남수문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남수문 하부에 하천방류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현대식 기법을 사용한 점 이외에도, 『화성성역의궤』와 달리 교각이 통으로 만들어져 외형적으로 원형과 달라져 일각에서는 ‘복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23〉 남수문 단면 및 입면도

〈그림 2-24〉 2012년 복원된 남수문

2) 은구



자료 : 화성전도

〈그림 2-25〉 수원화성의 배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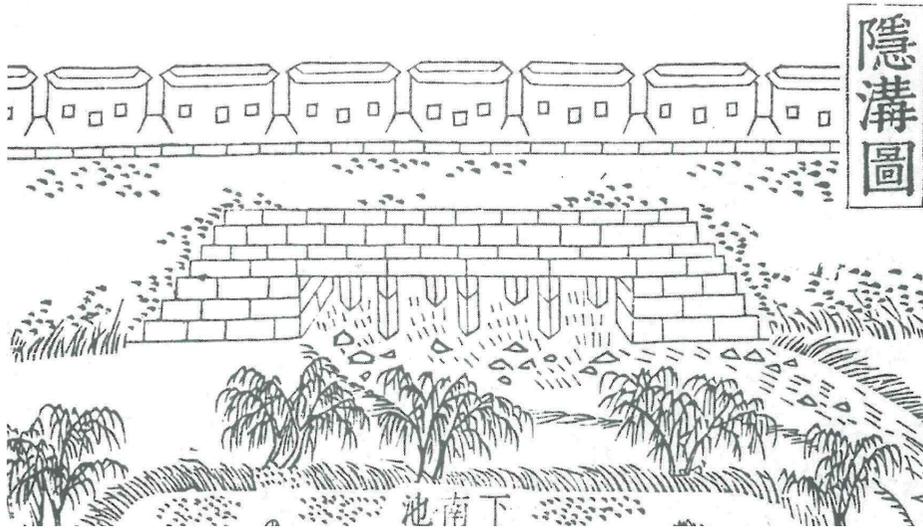
화성 내를 관통하는 ‘대천’ 외에도 성내·외로 유입·배수되는 물이 있었다. 성벽에 설치한 은구(隱溝)를 통해 성 밖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성 내의 물을 내보냈다. 은구는 북쪽과 남쪽에 각 1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두 시설의 성격이 서로 달랐다. 북은구는 성 밖의 작은 구거를 끌어들이 성 내의 연못에 물을 모으는 역할을 했으며, 남은구는 성 내의 구거를 성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했다. 두 시설의 공통점은 각각 북지(北池), 남지(南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지는 북은구를 통해 성내로 유입된 물을 저수하였고, 남지는 남은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물길의 상류에 위치하여 수량을 조절했다.

□ 남은구

남은구는 남서적대에서 서쪽 40보 1척 되는 곳에 있던 시설로 성안 냇물의 서쪽 지류를 흘러 지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 벽돌을 깔고 그 위에 3열로 돌기등을 쌓아 4개의 도랑을 만들었는데, 기등의 각진 모서리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놓고 기등의 옆을 엇갈리게 놓는 방식을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주변 성벽은 내탁으로 쌓았으나, 은구가 놓인 부분은 일정 높이까지 협축으로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 남은구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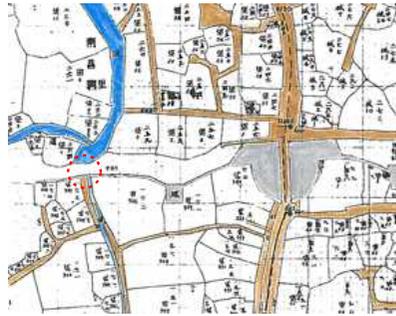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1801)	『화성지』(1831)
<p>「도설」 터 뒤편 누(남포루)로부터 다시 동쪽으로 90보를 가면 남치의 터다. 둘레는 14보 2척이고 아래로 평지에 이르기까지 71보이며 3간의 은구를 만들었다. 은구는 너비가 4보이고 성안 냇물의 서쪽 지류를 흘러 지나가게 한다.</p> <p>「도설」 남은구 남서적대의 서쪽 40보 1척 되는 곳에 있다. 원성을 쌓을 자리에 벽돌을 깔고 위에 짧은 돌기등을 3줄로 세우고 4개의 도랑을 만들었다. 전체 너비는 4보이고 그 안에 또 은주³¹⁾를 엇비슷이 교차시켜 설치하여 겨우 가는 물줄기만 통하게 하였는데, 성안의 물을 빼내기 위한 것이다. 상남지 하남지는 그 안에 있다.</p>	<p>「성곽」조 팔달문 서적대의 서쪽에 있다. 갑인(정조18, 1794)년에 뒀다. 원성을 쌓을 자리에 벽돌을 깔고 그 위에 짧은 돌기등을 3줄로 세워 4개의 도랑을 만들었다. 그 안에 또 은주를 엇비슷이 교차시켜 설치하여 겨우 가는 물줄기만 통하게 하였다. 도랑 위에는 돌을 얹어 성을 쌓았다.</p>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2-26〉 「은구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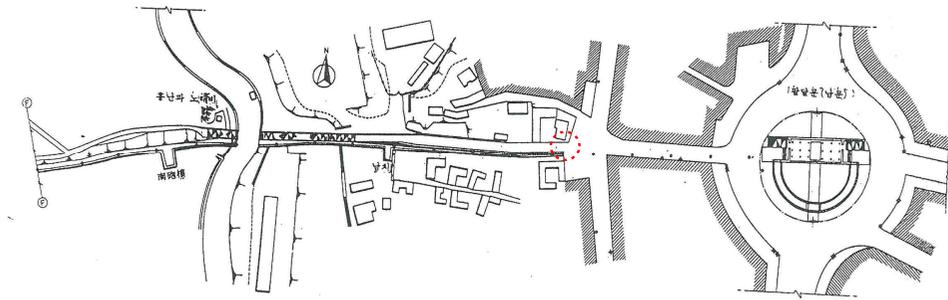
남은구는 팔달문 서쪽의 성벽 단절부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에 들어 성벽이 훼손되면서 멸실되었으며, 1970년대 정화사업 당시에도 복원되지 못하여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복원된 성벽이 끊겨있는 부분에 위치하는데, 「지적원도」의 물길을 토대로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2-27〉 상 남은구의 위치

31) 은구의 위에 덮여 있는 것을 떠받치는 기둥, 또는 안에 들어있어 드러나지 않는 기둥



자료 : 경기도·삼성건축, 수원성복원정화지

〈그림 2-28〉 복원정화사업시 남은구 부근의 측량도

□ 북은구

북서포루 서쪽 90보 되는 곳에 있었는데, 북은구는 성 밖으로 물을 배수하던 남은구와 달리 성 밖의 물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남은구의 제도와 거의 비슷하게 지었으나, 기둥이 둘이고 도랑이 셋이다. 전체 너비가 2보 5척으로 남은구 보다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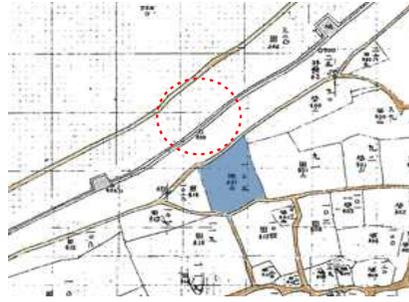
〈표 2-3〉 북은구 관련 기록

『화성성역의궤』(1801)	『화성지』(1831)
<p>「도설」 터 닦기 누(북서포루)의 서쪽 90보 되는 곳이 북은구이고 구의 넓이는 2보 5척으로 성외의 작은 도랑물을 끌어들어서 성내의 북쪽 못에 모이게 한다.</p> <p>「도설」 북은구 북서포루의 서쪽 90보 지점에 있는데, 제도는 남은구와 같다. 기둥이 둘에 도랑이 셋인데, 전체 너비는 2보 5척이다.</p>	<p>「성곽」조 북서포루의 서쪽에 있다. 갑인년에 뚫다. 제도는 남은구와 같지만 2개의 기둥과 3개의 도랑이다.</p>

「지적원도」 상으로는 성 밖에서 북은구로 연결될 법한 도랑이 확인되지 않아 성 밖 물길과 북은구와의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1970년대 정화사업 당시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성벽 하부에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북은구의 위치와 구조가 파악되었다.³²⁾ 교란이 심하였고 복지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북은

32) 「북은구 복원평면도」에 주기로 “북서포루와 북포루 사이의 No.39 말뚝 부근의 성

구의 복원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제약 사항으로 인해 복원에서 제외되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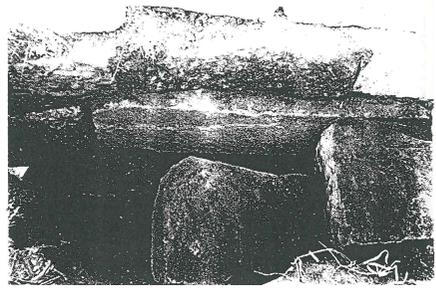
자료 : 지적원도

〈그림 2-29〉 복은구 위치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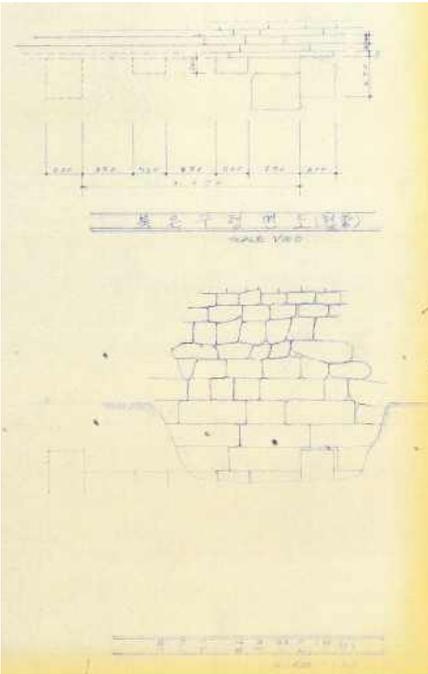
곽 내측에 석축이 3m 높기로 남아있는 곳”이라 기록하였다.
33) 경기도·삼성건축, 『수원성복원정화지』, 1980,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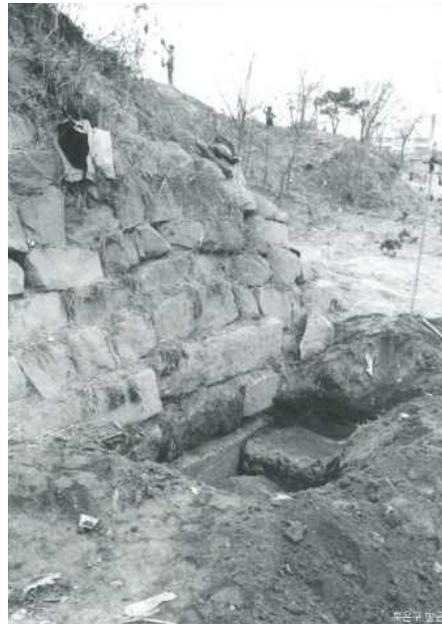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30> 북은구 발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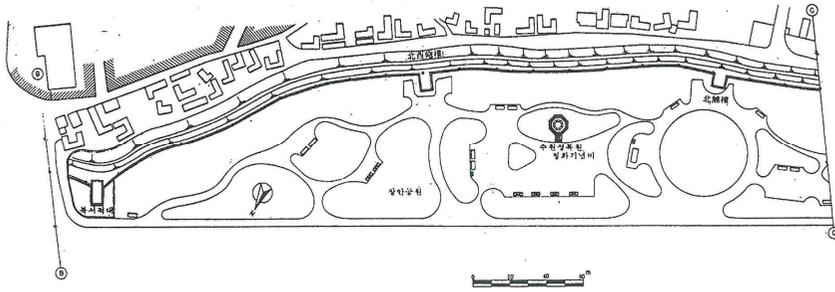
자료 : 수원성복원정화지
 <그림 2-31> 1974년 북은구 석축 하부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32> 1974년 북은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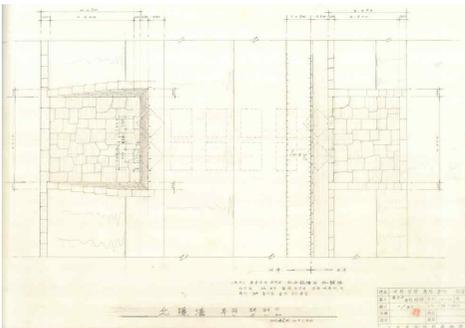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33> 북은구 발굴 모습



자료 : 수원성복원정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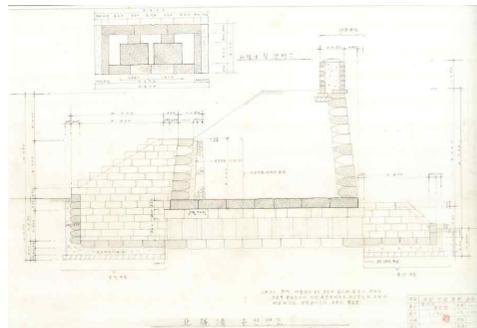
〈그림 2-34〉 북은구·북지가 포함되지 않은 복원계획

그러나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고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황도면과 복원도면을 작도한 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부분적 발굴조사를 통해 작도되어 오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며,³⁴⁾ 지표와의 레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복원을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35〉 복원평면도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그림 2-36〉 복원종단면도

34) 「종단면도」에 주기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

제3장

수원화성의 운영과 저수시설

제1절 성내 저수시설

제2절 성외 제언 축조

제3장 수원화성의 운영과 저수시설

제1절 성내 저수시설

수원화성에서는 팔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작은 개울물과 복은구를 통해 유입되는 성 바깥의 개울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내에 연못이 조성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성내의 연못은 총 5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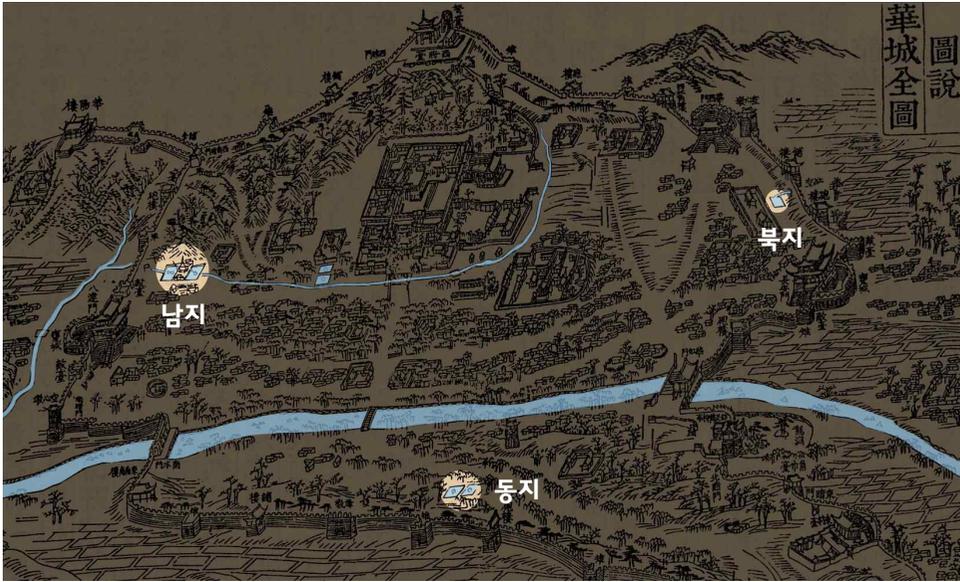
남지로 지칭되는 2개 연못 가운데 상남지는 1794년(정조18) 3월 14일에 파기 시작하여 2주 후인 4월 1일에 완성하였고, 하남지는 1796년(정조20) 7월 7일에 파기 시작하여 7월 27일에 완성하였다. 북지는 1794년 3월 16일에 파기 시작하여 4월 4일에 일을 마쳤다. 동지 가운데 하동지는 1794년 4월 7일에 착수하여 4월 21일에 완성하였으며, 상동지는 1795년 9월 14일에 파기 시작하여 9월 23일에 마쳤다.³⁵⁾

〈표 3-1〉 성내 연못 조성 개요

구 분		조성기간	규 모	특 징
남지	상남지	1794. 3.14~1794. 4. 1	사방 40보 / 깊이 6척	가운데 작은 섬 홍련, 백련 식재
	하남지	1796. 7. 7~1796. 7.27	너비 40보, 길이 60보 / 깊이 7척	가운데 섬 2개 상지와 남지 사이 정자
북지		1794. 3.16~1794. 4. 4	사방 30보 / 깊이 5척	
동지	상동지	1795. 9.14~1795. 9.23	남부 58보, 동서 50보 / 깊이 7척	기하 ³⁶⁾ 식재
	하동지	1794. 4. 7~1794. 4.21	사방 37보 / 깊이 4척	

35)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각항일자」

36) 마름과 연. 그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은인(隱人)이 입을(경기문화재단, 앞의책, 68쪽)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3-1〉 「화성전도」에 표현된 성내 연못

북지는 북은구를 통해 성내로 들어오는 물을 모아두었고, 상남지와 하남지로 구분된 남지는 팔달산에서 비롯된 개울이 남은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물길 위에서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수원천 동쪽에는 동지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동지의 경우 연못의 개수와 위치에 대해 기록과 「화성전도」의 표현이 엇갈린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는 ‘매향동 어귀’에 위치하는데 연꽃 등을 심었고 가운데 작은 섬이 있으며 ‘상지’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구천의 북방’에 있는데 ‘하지’라고 하였다. ‘상지’가 있었다는 매향동 어귀의 위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오교(매향교)의 북쪽으로 생각되며, ‘하지’는 구천이 수원천 남수문 밖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남수문 북쪽 어딘가로 추정된다. 그러나 「화성전도」의 그림 상 수원천 동쪽으로는 방지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연못만 표현되어 있다.

한편, 1830년대의 「화성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기본적으로 「화성전도」와 유사한 모습이나, 하나의 연못이 더 확인된다. 이 연못은 동지보

다 남쪽으로 내려온 위치에 있으며, 남지나 동지와 달리 상·하로 구분되지 않았다. 위치로 볼 때 『화성성역의궤』의 설명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매향동 어귀에 있었다는 연못이 방지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두 자료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면 이 연못은 화성 축성 이후~1830년 경 사이에 별개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3-2〉 「화성도」에 표현된 성내 연못

연못을 파는데는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공사를 맡은 관리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패장(경패장, 부패장) 1~5명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동지에는 감동(監董)도 참여한 기록이 있다.³⁷⁾

□ 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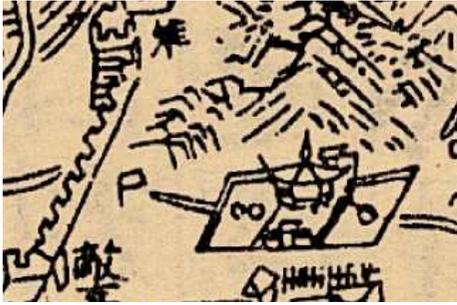
남은구를 통해 성 바깥으로 배출되는 물길의 상류에 위치한 남지는 상남지와 하남지 2개소로 구성되었다. 상류에 있던 상남지는 화성 축성이 시작된 1794년 3월에 사방 40보, 깊이 6척 규모로 조성되었다. 연못 한 가운데 작은 섬이 있었으며 홍련과 백련을 식재하였다. 하남지는 축성이 재개되어 거의 끝을 보고 있을 무렵인 1796년 7월에 조성되었다. 너비는 40보로 상남지와 동일하였으나, 길이는 60보로 규모가 더 컸으며, 깊이도 7척으로 더 깊었다. 연못의 조성시기가 다른 것은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연못을 하나 더 판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 남지 관련 기록

『화성성역의궤』(1801)	『수원군읍지』(1899)
<p>「도설」 남지2개</p> <p>팔달문 안에 있다. 남창의 남쪽에 있는 상지는 못의 너비 사방 40보 깊이 6척이고,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으며 홍련과 백련을 심었다. 하지는 너비 40보, 길이 60보, 깊이 7척이고 가운데에 섬 둘이 있는 두 못 사이에 정자터가 있다.</p>	<p>「지당」조</p> <p>팔달문 안 서쪽 가장자리 성벽 안쪽에 있다. 정종 갑인(정조18, 1794)년에 뾰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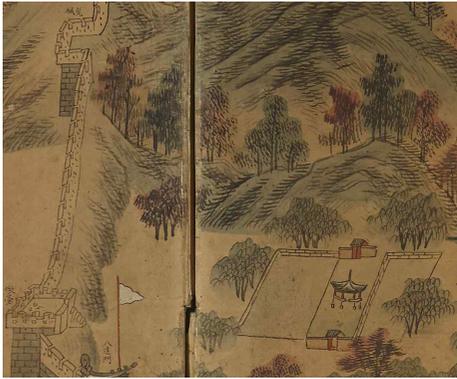
남지는 『화성성역의궤』의 그림과 「화성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그림 자료가 남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화성전도」에는 물길의 한 가운데 상·하남지가 위치해 있으며, 두 연못에 각 1, 2개의 섬이 표현된 것도 기록과 일치한다. 연못 사이에 모임지붕으로 표현된 정자가 있고 동·서쪽에 정자와 외부를 경계 짓는 담장과 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하게 그려진 「화성도」에는 은구와 물길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화성도」의 모습은 「화성전도」와 유사하나 보다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채색되어 있다. 하남지를 상남지보다 크게 그려놓아 실제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자는 경관을 즐기는 용도로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은구도」에는 두 연못이 성벽과 나란히 놓여 있으며 물길이 오른쪽에 있으나, 물길과 연못의 연결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37) 『화성성역의궤』 권1 「좌목」 성역소좌목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3-3〉 남지 「화성전도」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3-4〉 남지 「화성도」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3-5〉 은구도

그러나 남지의 위치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지적원도」(1911)에서는 남지 아래 있었던 남은구의 위치는 파악되지만, 그 물길의 상류에 있어야 할 남지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일대에는 대지(垓地)나 전답(田畓)만 있어 1899년 「읍지」 편찬 당시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 이후 어느 시점에 메워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 초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보였던 팔달문 일대와 근접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부득이한 일이었던 걸로 생각된다.³⁸⁾

38) 서울의 경우에도 돈의문 밖 서지와 흥인지문 밖 동지가 「지적원도」 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달리, 급속한 변화를 겪었던 숭례문 밖 남지는 이미 필지가 변화되어 있었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6〉 남지



자료 :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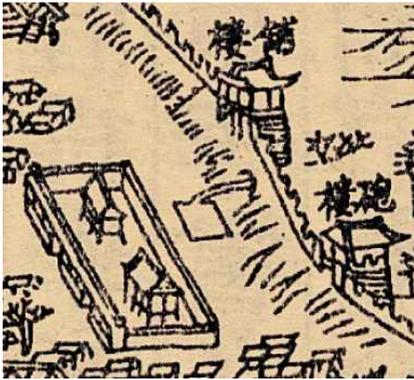
〈그림 3-7〉 남지 (현재 중첩)

□ 북지

북지는 1794년에 축조된 것으로, 북쪽 성벽 밖의 도랑으로부터 북은구를 통해 물을 끌어들이어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 사방 30보, 깊이 5척 규모였다. 「화성전도」에서는 북은구에서 북지로 연결된 물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성도」에서는 북지 주변에 나무가 식재된 것이 확인된다. 북지 남쪽으로 창고 건물이 위치하였다.

〈표 3-3〉 북지 관련 기록

『화성성역의궤』(1801)	『수원군읍지』(1899)
<p>「도설」 북지 북은구 안에 있는데, 성 밖 도랑의 물을 끌어 대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사방 30보, 깊이 5척이다.</p>	<p>「지당조」 화서문 안 북쪽 가장자리 성벽 아래에 있다. 경종 갑인(정조18, 1794)년에 뒀다.</p>



자료 : 화성전도

〈그림 3-8〉 복지



자료 : 화성도

〈그림 3-9〉 복지

「지적원도」 상에 복지의 위치는 확인되지만, 성 밖의 물길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당시 성 밖에는 이렇다 할 구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10〉 복지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11〉 복지 (중첩)

□ 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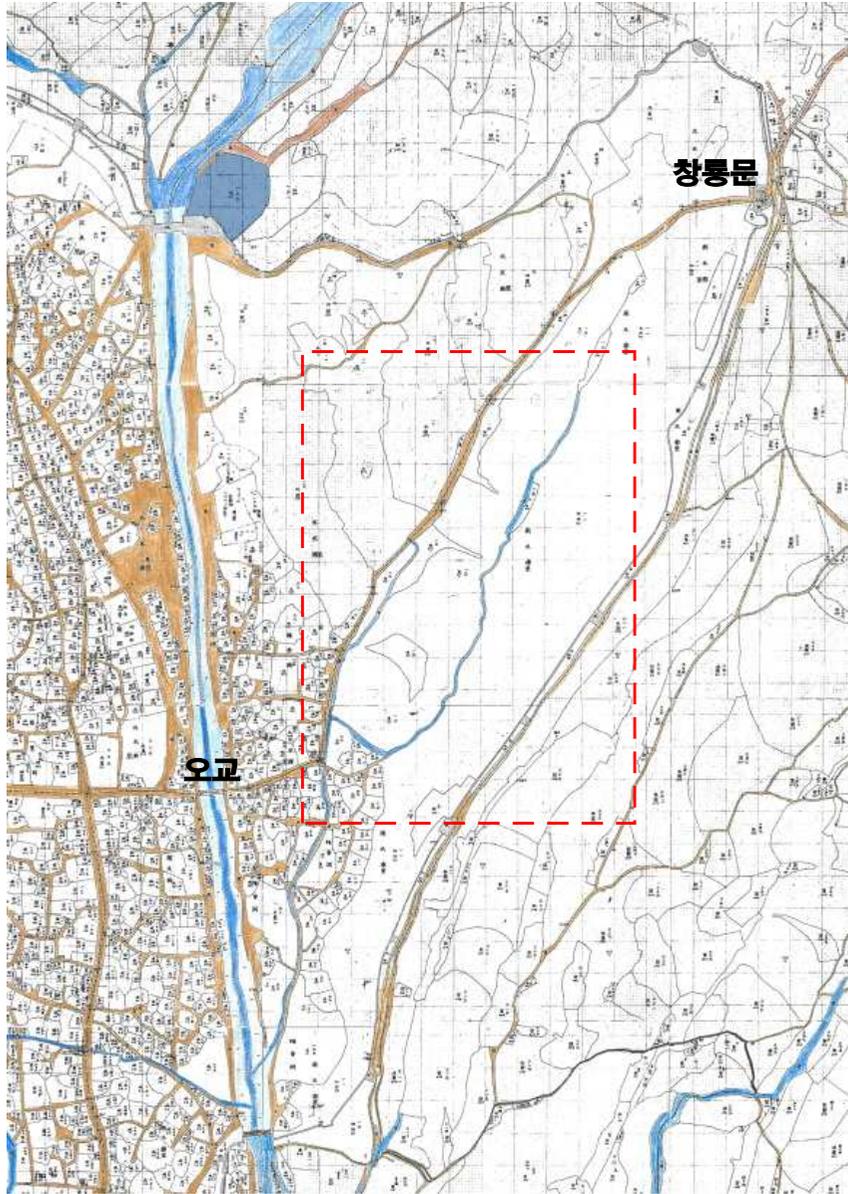
남지와 북지가 1899년에 간행된 『수원군읍지』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지에 관한 기록은 없어 당시에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동지 관련 기록

『화성성역의궤』(1801)	『수원군읍지』(1899)
<p>「도설」 동지2개</p> <p>하나는 매향동 어귀에 있는데, 남북길이 58보, 동서 너비 50보, 깊이 7척이다. 기하를 심었고,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다. 이것이 상지이다. 하나는 구천³⁹⁾의 북방에 있는데 사방 37보, 깊이 4척으로 이것이 하지이다.</p>	<p>-</p>

「지적원도」 상에서 북동쪽으로부터 ‘대천’으로 합류되는 작은 도랑이 확인되나 연못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앞서 언급한 동지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의문은 해결하기 어렵다. 단, 도랑을 근거로 동지의 기능 역시 남지와 유사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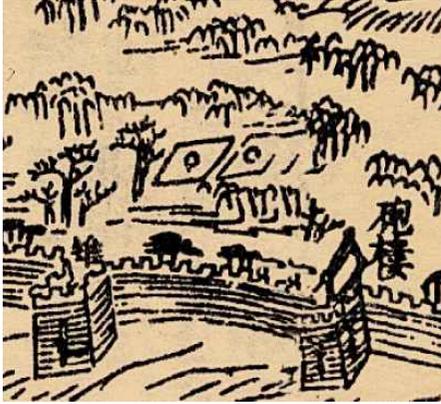
39)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성내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대천이라 하고, 대천이 남수문을 지나 성내를 빠져나가는 물길을 구천이라 한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12〉 현 수원천 동쪽 부분

이처럼 ‘동지’는 사료상으로 19세기 말에 이미 없어져버린 것으로 생각되며, 20세기 초의 지적자료에서도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화성전도」에 표현된 동지 1곳과 「화성도」에 표현된 동지 2곳에 대한 확인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 : 화성전도

〈그림 3-13〉 동지 1



자료 : 화성도

〈그림 3-14〉 동지 1



자료 : 화성도

〈그림 3-15〉 동지 2

제2절 성외 제언 축조

화성의 남쪽은 비교적 기름진 땅이어서 이전부터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북쪽은 거의 개간되지 않은 황폐한 땅으로 팔달산 서쪽의 고등동 주변은 땅에 소금기까지 있을 정도였다. 읍치를 새로 이전하고 화성을 축성하면서 생성된 신도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정조는 신도시 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제언의 축조와 둔전 경영이 핵심적 사안이었다.⁴⁰⁾

정조는 즉위 초부터 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1778년 「제언절목」을 반포하여 제언의 신축보다는 기존 제언의 관리·복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다.⁴¹⁾ 신읍치로 이전하기 전 수원부 내에 이미 여러 곳의 제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18세기 말의 『수원부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제언들 가운데 구 수원읍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된 권동제언, 사사리제언, 장교제언, 신원제언 등의 규모를 살펴보면 둘레는 1,000~2,000척 사이이고, 깊이는 1~3척이다.⁴²⁾ 규모로 볼 때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신읍치의 규모에 맞는 큰 제언의 축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김동욱(2002),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178쪽

〈그림 3-16〉 신읍치 이전 이후 조성된 제언

40) 수원화성박물관,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2014, 277쪽

4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中』, 1997, 522쪽

42) 『수원부읍지』, 18세기말, 「제언」조(화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 읍지』, 2006)

정조는 축성이 시작된 1794년(정조18) 11월 추위로 인해 공사를 잠시 중단하면서 윤음(綸音)을 내려 성 북쪽의 땅을 개간하도록 명했다. 1795년(정조19) 윤2월 유수 조심태는 구체적인 개간 방안을 제시하였다.⁴³⁾ 처음에는 광고산 상류 근처에 보를 파고 제방을 열어서 새로 개간될 밭에 미치게 하였으나, 소금기가 있는 고등말 북쪽 땅의 황량함은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진목정 아래에 만석거를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⁴⁴⁾ 1795년 3월 1일 독을 쌓기 시작하여 5월 18일 만석거를 완성하였다.⁴⁵⁾ 규모는 둘레 1,022보, 수심 7~11척이었으며,⁴⁶⁾ 몽리답은 66섬지기였다. 장교 중 선발한 감관 1명과 감고 1명이 관리하였다.

1797년(정조21) 사도세자의 무덤인 용릉 남쪽에도 제언이 신축되어 이름을 만년제라 하였는데, 길이 460척, 너비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수심 5척, 수문 1곳, 몽리답은 62섬지기였다. 원소(園所)에서 차출한 감관 1인과 감고 1명이 관리하였다.

만석거, 만년제 등의 대규모 수리시설과 둔전 개간이 성공하자 1799년(정조23)에는 화성 서쪽 5리 위치에 축만제를 쌓았다. 당시 화성유수였던 서유린이 균역청에서 1만냥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월 초순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완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대유둔설치절목」에 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축만제는 길이 1,246척, 너비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수심 7척, 수문 2곳으로 만석거의 3배에 달할 정도의 규모였으며, 몽리답은 232섬지기였다. 장교 중 선발한 감관 1명과 감고 1명이 관리하였다.

한편 제언의 조성은 정조연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825년(순조25)에는 화성 남쪽 5리 위치에 만석거와 유사한 규모의 제언을 쌓고

43)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2002, 174~175쪽

44) 『화성성역의례』 부편1, 「만석거」

45) 『화성성역의례』 권수, 「시일」 「각항일자」

46) 『화성지』(1831)의 기록에는 ‘길이 875척, 너비 10척, 높이 12척 5촌, 두께 10척 5촌, 수심 8척 7촌, 수문 2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47) 수원화성박물관,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2014, 168쪽

남제라 하였다. 길이 800척, 너비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수심 8척, 몽리답은 90섬지기였다. 제언 부근에 사는 백성 가운데 1명을 감관으로 차출하였고 감고 1명과 함께 관리하였다.⁴⁸⁾



〈그림 3-17〉 (18세기 후반)에 표현된 만석거와 축만제

48) 이상 각 제언에 대한 설명은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 읍지』(화성시, 2006)에 수록된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5〉 신읍치 이전 후 조성된 제언 개요

구분	위치	조성시기	규모	특징
만석거	부의 북쪽 5리	1795년(정조19)	길이 875척 / 넓이 850척 높이 12척 5촌 두께 10척 5촌 수심 8척 7촌	수문 2곳 몽리담 66섬지기
축만제	부의 서쪽 5리	1799년(정조23)	길이 1,246척 /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수심 7척	수문 2곳 몽리담 232섬지기
만년제	원소(용진릉) 남쪽 3리	1797년(정조21)	길이 460척 /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수심 5척	수문 1곳 몽리담 62섬지기
남 제	부의 남쪽 5리	1825년(순조25)	길이 800척 / 넓이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수심 8척	수문 2곳 몽리담 90섬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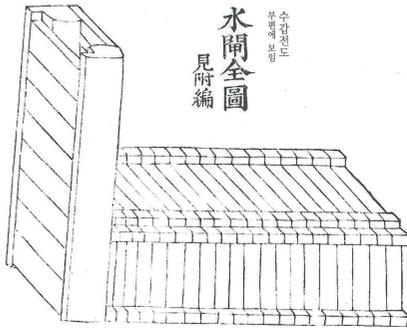
□ 만석거

만석거는 1795년 3월 1일부터 1795년 5월 18일까지 약 1달 반의 시간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공사를 맡은 관리는 부패장 2명이였다.⁴⁹⁾ 진목정 아래에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서북쪽 제방 끝에 ‘여의교’라는 나무다리를 놓았고, 남동쪽 제방 끝에는 물구멍을 설치하여 관개수로와 통하게 하였다. 관개수로와 통하는 구멍은 가로세로 엇쌍아 네모나게 하였으며, 물구멍 안쪽에는 갑문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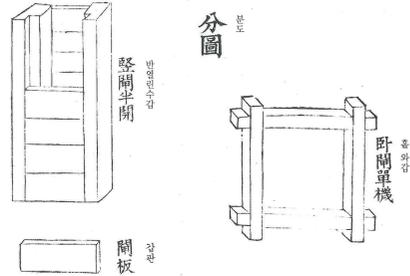
〈그림 3-18〉 「화성도」의 만석거

49) 『화성성역의궤』 권1 「좌목」 성역소좌목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3-19〉 만석거 수갑전도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3-20〉 만석거 수갑분도

둘레는 1,022보였으며, 깊이는 7~11척에 달하였다. 제방의 길이는 725척으로 아래쪽의 두께는 52척, 위쪽에 길로 이용된 부분은 17척이었다. 1척을 50cm로 대략 계산해 봤을 때,⁵⁰⁾ 제방의 길이가 「지적원도」의 규모와 대략 비슷하여 100여년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으로는 일형면 송죽리 417번지에 해당하며, 면적은 20,752평이었다. 당시의 엽서에는 ‘복지’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자료 : 화성박물관 기획전시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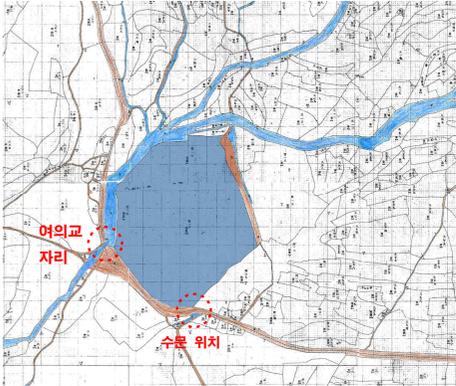
〈그림 3-21〉 上:제방 안 下:제방 밖

50) 1740년(영조16)에 새로 정해진 포백척의 길이는 대략 48~49cm로 추정된다.(『한민족문화대백과』, 포백척)

〈표 3-6〉 만석거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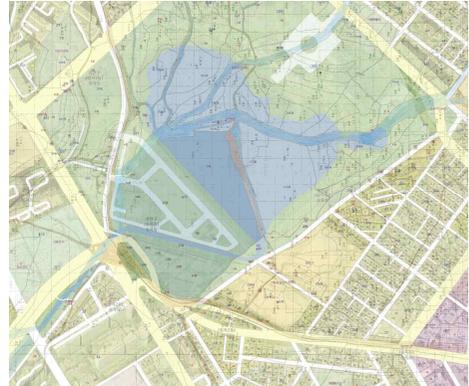
『화성성역의례』(1801)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p>『화성성역의례』 부편1, 정거(亭渠)</p> <p>갑인년(1794) 겨울에 공사를 쉬게 하라는 임금의 말씀이 내려와서 먼저 북성 바깥에 땅을 개간하였다. 이듬해 봄에 광교산 상류 근처에 보를 파고 제방을 열어서, 새로운 밭에 미치게 하였다. 그러나 서쪽으로 3리 거리의 고등말(고등촌) 북쪽벌인 소금기가 있는 땅은 멀리서 보면 모두 황량하였다. 마침내 진목정 아래에서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고 물을 채워 갑문을 설치하여 물을 대기 이롭게 하니 이것이 만석거이다. 둘레 1,022보이고, 얇은 곳이 7척, 깊은 곳이 11척이다. 제방의 길이가 725척, 밀의 두께가 52척, 위는 줄어들어 너비가 17척 남짓이다.(모두 포백척을 사용) 남쪽은 흙 낭떠러지에서 시작해서 북쪽은 돌 낭떠러지에서 끝난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의 돌을 파서 물이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 물을 끌어내리는 길과 통하게 하였고, 나무다리를 걸쳐놓아 여의교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리의 너비는 방죽 등허리와 나란히 하여 그대로 가마길을 만들었다. 또 남쪽 머리께 방죽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의 물구멍을 설치하였는데, 나무를 깎아 마치 우물난간의 틀과 같이 하여 가로 세로로 엮어서 네모난 구멍이 관개수로와 관통하게 하였다. 안쪽에는 갑문을 설치하고 가로로 14층의 격판을 놓았는데 높이가 5척 5촌이다. 보통 때는 판문을 닫고 흙으로 막아놓아서 안에서 보면 수로가 있는지 모른다. 관개할 때에 널판을 열고 물을 내보낼 때 그 많고 적음을 적당히 한다. 그 아래에 이익을 받는 논은 모두 고등말 북벌이다. 장안문 밖에서부터 새로 개간한 곳을 다함께 대유평이라 한다.</p>	<p>「비문」조</p> <p>여의교로부터 100여보 이다. 길 동편에 표석이 있다. 만석거라 새겼다. 그 동쪽에 영화정이 있다.</p> <p>「제언」조</p> <p>부의 북쪽 5리 일용면에 있다. 정조 을묘(정조19, 1795)년에 축조하였다. 갑인(정조14, 1794)년 성역을 잠시 멈추고 내린 윤읍으로 인하여 북쪽 성 밖 넓은 토지를 간전할 것을 하교하였다. 을묘(정조19, 1795)년 봄에 보를 파고 갑양을 설치하였으며, 인하여 제를 축조하였다. 재력은 내하전 20,000냥 이었다. 윤읍은 축성사실조에 보인다.) 감관 1원(장교로 차출하고 축만제 감관도 마찬가지로.) 감고 1명이 있다.</p> <p>길이 875척, 넓이 150척, 높이 12척 5촌, 두께 10척 5촌, 수심 8척 7촌, 수문 2곳, 몽리답 66석 락지기이다.</p>	<p>「필로」조</p> <p>- 여의교에서 100보쯤 떨어진 길 동쪽에 표석이 있는데, 만석거라 새겨져 있다. 그 동편은 영화정이다.</p> <p>「제언」조</p> <p>- 부의 북쪽으로 5리 거리의 일용면에 있다. 정종 을묘(정조19, 1795)년에 쌓았다. 길이 875척, 넓이가 850척, 높이가 12척 5촌, 두께가 10척 5촌, 깊이 8척 7촌, 수문 2곳 몽리답은 66섬지기이다.</p>

그러나 현재의 만석거와 비교해보면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 정조의 필로로 사용되었던 제방이 있던 곳은 현재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수된 물은 이전보다 동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22〉 만석거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23〉 만석거 (현재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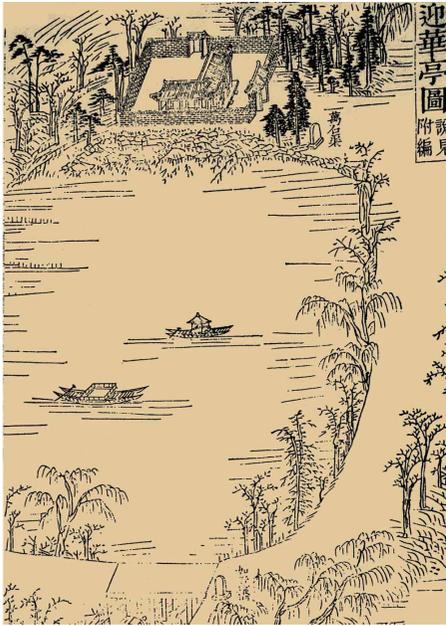
만석거 남쪽 언덕에 저수지와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된 영화정은 우수한 경관으로 유명하였다. 1795년(정조19) 8월말에 터를 닦고, 9월에 정초·입주상량하여 10월 3일에 완성하였다.⁵¹⁾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영화정 공사에 참여한 관리자·장인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목수편수 3인, 니장편수 1인이 참여하였다.⁵²⁾

〈표 3-7〉 영화정 관련 기록

『화성성역의궤』(1801)	『수원군읍지』(1899)
<p>부편1, 정거(亭渠)</p> <p>장안문을 나와 북쪽으로 5리 쯤 거리 지하동 입구 진목정 아래에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고 만석거라 이름을 붙였다. 을묘년(1795) 가을부터 물을 받아 호수에 들여보내고, 이어서 남쪽 언덕 위에 정자 하나를 세웠다.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다보고 기름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 정자에 올라가 바라보는 경치는 경기도 남쪽 지역을 뒤흔들 만하다. 정자는 모두 8칸이다. 북쪽에 세로로 2칸이 온돌이고, 남쪽에 가로로 2칸은 깔판이다. 3면과 온돌의 뒤는 모두 반 칸을 물렸고, 연꽃잎 난간을 두르고 있다. 온돌 4면은 모두 쇠창 장지를 설치하였다. 단청은 다섯가지 색깔을 썼다. 정자 서쪽에는 대문을 설치하고 남쪽에는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사방을 담장으로 둘렀다. 병진년(1796) 봄에 임금이 탄 수레가 들렀을 때 명령을 내려 영화정(수원부 유수 조심태가 씌)이라고 편액하였다.</p>	<p>「누대」조</p> <p>장안문 밖으로 3리쯤 만석거 남쪽 언덕에 있다. 정종 을묘(정조19, 1795)년에 세우고 병진(정조20, 1796)년 주필 때 편액을 명하였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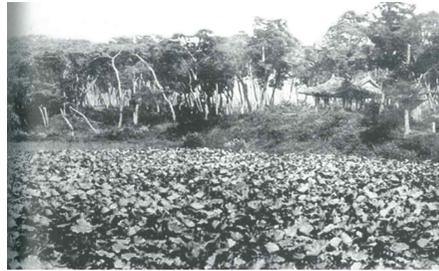
51) 『화성성역의궤』 권수 「시일」 추택일시

52) 『화성성역의궤』 권1 「좌목」, 권4 「공장」



자료 : 화성성역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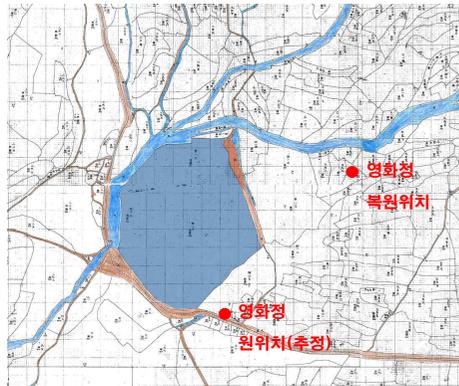
〈그림 3-24〉 영화정도



자료 : 사진으로 보는 화성 백년의 여정

〈그림 3-25〉 만석거와 영화정

오래 전에 허물어졌던 것을 만석
공원이 조성되면서 1996년 10월 복
원하였는데, 원 위치에서 동북쪽으
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석거의 원래 범
위를 고려해 볼 때 대지(垜地) 중
일형면 송죽리 408번지(배□□ 소
유, 116평)가 원 위치일 가능성이
크며, 이곳이 아니라면 409번지 입
야지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26〉 영화정 원위치 추정

한편 만석거에는 2척의 배를 띄웠다. 수원화성을 축조하면서 3척의 배를 만들어 북수문(화홍문) 밖의 용연과 만석거에 두었는데, 길이 30척, 너비 8척 5촌의 소정 1척과 규모가 더 작은 길이 23척, 너비 6척 5촌의 소소정 2척을 도합 100냥을 들여 조선하였다.⁵³⁾ 『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석거에 소정 1척, 소소정 1척을 두었으며, 용연에 소소정 1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의 용도는 영화정과 더불어 경관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27〉 현 영화정 위치 (현재 중첩)



〈그림 3-28〉 송죽리 408번지

53) 『화성성역의궤』 권6 채용下, 「실입3」, 조선

□ 축만제

1799년(정조23) 축조한 축만제는 제방의 길이가 1,246척으로 1912년 「지적원도」 상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여 제방은 처음 축조시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심은 7척이며, 수문은 2곳이 있었다. 일형면 동리 223번지와 436번지가 해당되며, 넓이는 각각 5,560평, 120,578평이다.

〈표 3-8〉 축만제 관련 기록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p>「제언」조 부의 서쪽 5리 북부면에 있다. 정조 기미(정조 23, 1799)년에 축조하였다. 감관 1원, 감고 1명이 있다. 길이 1,246척,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수심 7척, 수문 2곳, 몽리담 232석 락지기이다.</p>	<p>「제언」조 부의 서쪽으로 5리 거리의 북부에 있다. 정조 기미(정조23 1799)년에 쌓았다. 길이 1,246척,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5촌, 깊이 7척, 수문 2곳, 몽리담은 232섬지기이다.</p>



자료 :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그림 3-29〉 향미정과 서호(일제강점기 엽서)



자료 : 수원광고박물관 제공

〈그림 3-30〉 축만제 수문(일제강점기 엽서)

축만제 서쪽 언덕에는 1831년 당시 화성유수였던 박기수가 세운 정자인 향미정이 있다. 몇 차례 중수·중건되었으며, 근대기 주변에 권업모범장이 들어섰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다. 1986년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축만제는 현재 ‘서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서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서호공원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서호는 본래의 규모에 비하면 절반가량 축소된 것으로 국철 1호선 건너편 부분은 길로 바뀌었으며, 본 영역의 서남쪽 부분만이 저수지로 사용된다.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31〉 축만제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32〉 축만제



자료 : 지적원도

〈그림 3-33〉

축만제 (현재 중첩)

□ 만년제

만년제는 1798년(정조22)에 쌓은 것으로 주변의 현룡원과 원찰인 용주사를 경영하기 위한 둔전에 물을 댔다. 1795년(정조19) 을묘원행 당시 현룡원 동구에 위치한 방축수(防築藪)를 만년제로 개명하고 표석을 원행로 주변에 세울 것을 명하여 이듬해인 1796년 만년제 주변 일대의 식목과 조경을 정비하였다. 1798년 2월 13일 소준(疏濬)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에 준공되었다.⁵⁴⁾ 규모는 만석거보다 작았지만 공사비는 만석거의 5,960냥과 비슷한 6,000냥이 소요되었다.

만년제 독에 버드나무와 떼를 입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서쪽 독에 두 곳의 은구를 설치하였다. 만석거와 유사한 수갑과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⁵⁵⁾ 『일성록』에 의하면 만년제 가운데는 풍수지리에 따라 원형으로 만

54)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2012, 112쪽. 『일성록』 등의 사료를 토대로 한 연혁으로 1798년에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읍지」의 1797년과는 기록이 상이한데, 자세한 전모가 기록된 『일성록』의 내용이 더 신뢰할 만하다.

든 인공섬인 괴성(塊星)이 있었는데, 석재로 12층을 쌓았다. 지대는 원둘레 81보(보척)이고 석축 상측은 원둘레 81보(양척)였으며, 지대석에서 사초 입힌 곳까지 높이 10척(목척)이고, 사초 입힌 곳에서 봉우리 위까지 높이 7척(목척)이라 하였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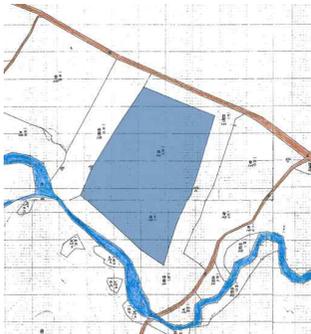
〈표 3-9〉 만년제 관련 기록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p>「비문」조 유근교로부터 수리쪼이다. 길 남편에 표석이 있다. 만년제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방축수이다. 을묘(정조19, 1795)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정조 정사(정조21, 1797) 행행 때의 어제 「좌의정이 만년제에서 씨 뿌리는 것을 보고 지은 시의 운에 화답하다」가 있다.</p> <p>「제언」조 원소 남쪽 3리에 있다. 정조 정사(정조21, 1797)에 축조하였다. 감관 1인(원소에서 차출하고), 감고 1명이 있다. 길이 460척,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수심 5척, 수문 1곳, 몽리담 62섬지기이다.</p>	<p>「필로」조 유근교에서 몇 리쯤 떨어진 길 남쪽에 표석이 있는데, 만년제라고 새겨져 있다. 처음 이름은 방축수인데, 을묘(정조19, 1795)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정조께서 정종 정사(정조21, 1797)년 거동 때 직접 좌의정이 지은 '만년제에서 농사를 구경하다'는 시문에 화답한 시에 ... 라고 하였다.</p> <p>「제언」조 원소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으며, 정종 정사(정조21, 1797)년에 쌓았다. 길이 460척,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깊이 5척, 수문 1곳, 몽리담은 62섬지기이다.</p>

위치는 안녕면 안녕리 152번지에 해당하며, 「토지조사부」(1911) 상에는 7,257평으로 초축 당시의 기록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년제가 있던 곳은 옛 지적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 공터이다. 지목은 유수지로 되어 있으나 예전 저수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1996년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되었다.

55) 수원화성박물관,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2014, 166쪽

56)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화성시, 2012, 29쪽



〈그림 3-34〉
만년제(「지적원도」)



〈그림 3-35〉 만년제 (현재)



〈그림 3-36〉
만년제(「지적원도」, 현재 중첩)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북쪽의 상수문을 제외한 대략의 전모가 파악되었다. 문헌에서 나타난 괴성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하수문지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감시설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만석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⁷⁾ 현재 4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57) 2007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굴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경과와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① 2007년 1차 발굴조사 : 화성시, 『만년제 복원·정비 연구』, 2007
- ② 2012년 2차 시·발굴조사 : 화성시·경기문화재단,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2012
- ③ 2012~2013년 만년제 동쪽 제방 및 하수문지 관련 시·발굴조사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서울지방국도관리청, 『수원시 관내(화성 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화성 만년제 하수문지-』, 2015
- ④ 2014년 3차 시·발굴조사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화성시, 『화성 만년제 3차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 ⑤ 2015년 4차 시·발굴조사 : 현재 조사 진행 중



자료 :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그림 3-37> 2007년 만년제 제방 절개 모습



자료 :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그림 3-38> 2012년 화성 만년제 유적 원경



자료 :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그림 3-39> 만년제 괴성



자료 : 수원시 관내(화성 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구
 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화성 만년제 하수문지-
 <그림 3-40> 하수문지

□ 남제

남제는 신읍치가 조성되면서 쌓은 제방이 아니고 1825년(순조25)에 축조한 것이다. 가로세로 800척의 방형 저수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지적원도」 상에서 흔적을 찾지 못하여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표 3-10> 남제 관련 기록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p>「제언」조 부의 남쪽 5리 남부면에 있다. 지금 임금님 을유(순조25, 1825)에 축조하였다. 감관 1인(제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차출한다. 만년제 감관 외에는 마찬가지이다.) 감고 1명이 있다. 길이 800척, 넓이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수심 8척, 수문 2곳, 몽리담 90석 락지기이다.</p>	<p>「제언」조 부의 남쪽으로 5리 거리의 남부에 있다. 순조 을유(순조25, 1825)년에 쌓았다. 길이 800척, 넓이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깊이 8척, 수문 2곳, 몽리담은 90섬지기이다.</p>

제4장

결론

제1절 물길 및 수변시설의
유무형적 가치

제2절 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복원사업

제4장 결론

제1절 물길 및 수변시설의 유무형적 가치

1. 수원 신읍치 관련 주요 물길

수원 신읍치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물길은 크게 세 곳이 있다.

사근천·대천(현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성내를 관통하는 물길로, 남쪽으로 흘러 대황교동 부근에서 현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수원화성 내로 유입되는 물길로서 수원화성의 배수체계 및 가로계획, 공간구조 등에 영향을 미쳤다.

진목천은 광교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만석거로 모이는 하천으로, 남서 방향으로 흘러 현 서호천과 합류한다. 수원화성 북쪽 대유평의 운영을 위해 축조한 제언인 만석거와 관계있는 물길이다. 현재 발원지에서 만석거까지의 하천은 모두 복개되었다.

현 서호천은 수원 북쪽에서 발원하는 물길로, 만석거에서 흘러나온 물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평리동 일대에서 현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이 일대의 관개를 담당한 축만제와 관계된 물길이다. 이 물길들은 수원화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료 : 지적원도, 네이버지도

〈그림 4-1〉 1910년대와 현재 물길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볼 때, 옛 물길의 연구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필요성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가치에 있다. 수원의 경우 중요한 역사 콘텐츠 ‘정조대왕’의 주요 업적인 화성 조성과 관련하여 역사문화콘텐츠의 백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심도깊게 연구하지 못했으나, 향후 옛 교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부읍지』, 『화성지』, 『수원군읍지』 등의 사료에는 수원 일대의 교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다수의 교량들 가운데 정조의 을묘원행 길과 연관된 것은 특히 심화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 주요 사료에 기록된 다리

위치 (府 기준)	명칭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899) (내용 대동소이)
북	괴목정교	「비문」조 경주오필대로부터 1리쯤이다. 길 서편에 표석이 있다. 괴목정교라 새겼다. 「교량」조 부의 북쪽 10리 일용면에 있다.
	목욕동교	「교량」조 부의 북쪽 7리 일용면에 있다.
	여의교	「비문」조 일용리로부터 3리쯤이다. 길 서편에 표석이 있다. 여의교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진목정교이다. 병진(정조20, 1796)년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교량」조 부의 북쪽 일용면에 있다.
부 내	신평교	「교량」조 신평루 앞에 있다. 정조 기유(정조13, 1789)에 돌로 쌓았다.
	매향교	「교량」조 부내에 있다. 지금 임금님 갑술(순조14, 1814)에 돌로 쌓았다. 일명 오교라고 한다.
남	매교	「비문」조 팔달문으로부터 3리 쯤이다. 길 서편에 표석이 있다. 매교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매산교이다. 을묘(정조19, 1795)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다리는 예전에 지금 세워진 다리의 남쪽 100여보에 있었다. 지금 임금님 을유(순조2, 1825)년 유수 김이양이 아래 길이 저여되므로 장계하여 만화현으로 옮길 것을 청하였다. 또 다리를 이곳으로 옮기고 표석을 옮겨 세웠다. 옛 필로는 옛 매교 100여보부터 상류천에 이르기까지이다. 표석이 있다. 상류천이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삼거리(三巨里)이다. 을묘년부터 고쳐서 명명하였다. 행궁으로부터 통합하여 5리로 장승을 세웠다. 상류천으로부터 재간현까지 5리이다. 장승을 세웠다. 재간현부터 용봉까지 5리이다. 「교량」조 부의 남쪽 3리 남부면에 있다.
	황교	「비문」조 하류천으로부터 100여보이다. 길 동편에 표석이 있다. 황교라 새겼다. 처음이름은 소황교이다. 을묘(정조19, 1795)년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교량」조 부의 남쪽 15리 안녕면에 있다.
	배양교	「교량」조 부의 남쪽 15리 용북면에 있다.
	대황교	「비문」조 용봉으로부터 100여보이다. 길 서편에 표석이 있다. 대황교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황교이다. 을묘(정조19, 1795)년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단정(短亭)이 있다.

		「교량」조 부의 남쪽 20리 안녕면에 있다.
	세람교	「교량」조 부의 남쪽 20리 문시면에 있다.
	오목천교	「교량」조 부의 남쪽 20리 안녕면에 있다. 지금 임금님 기축(순조29, 1829)에 돌로 쌓았다.
	유근교	「비문」조 안녕리로부터 1리쯤이다. 길 북편에 표석을 세웠다. 유근교라 새겼다. 처음 이름은 사성교이다. 을묘(정조19, 1795)에 고쳐서 명명하였다. 「교량」조 부의 남쪽 25리 안녕면에 있다.
서남	후평천대교	「교량」조 부 서남쪽 15리 용북면에 있다.
	후평천소교	「교량」조 부 서남쪽 15리 용북면에 있다.

한편 고지도 상에 확인되는 교량은 당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다리였으며 지표(指標)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산천과 도로, 주요 관아, 사찰 등이 개략적으로 표시된 옛 지도에는 모든 다리가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선택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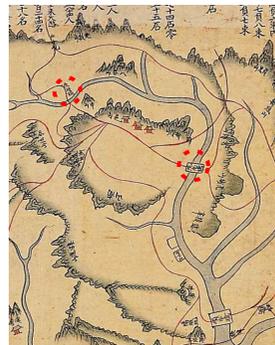
구 읍치 시기의 지도를 살펴보면 串山 서북쪽 오목천과 구 읍치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이 만나는 곳에 후평교(後坪橋)가 확인되며, 구읍치에 동남쪽으로 향하는 길과 구천이 만나는 곳에 세남교(洗南橋)가 확인된다. 세남교는 신 읍치 이전에 기록된 『수원부읍지』에 ‘부 남쪽 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원부읍지』에 기록된 위치나 명칭으로 볼 때, 후천대교와 후천소교는 후평교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그림 4-2〉 「여지대전도」
수원부(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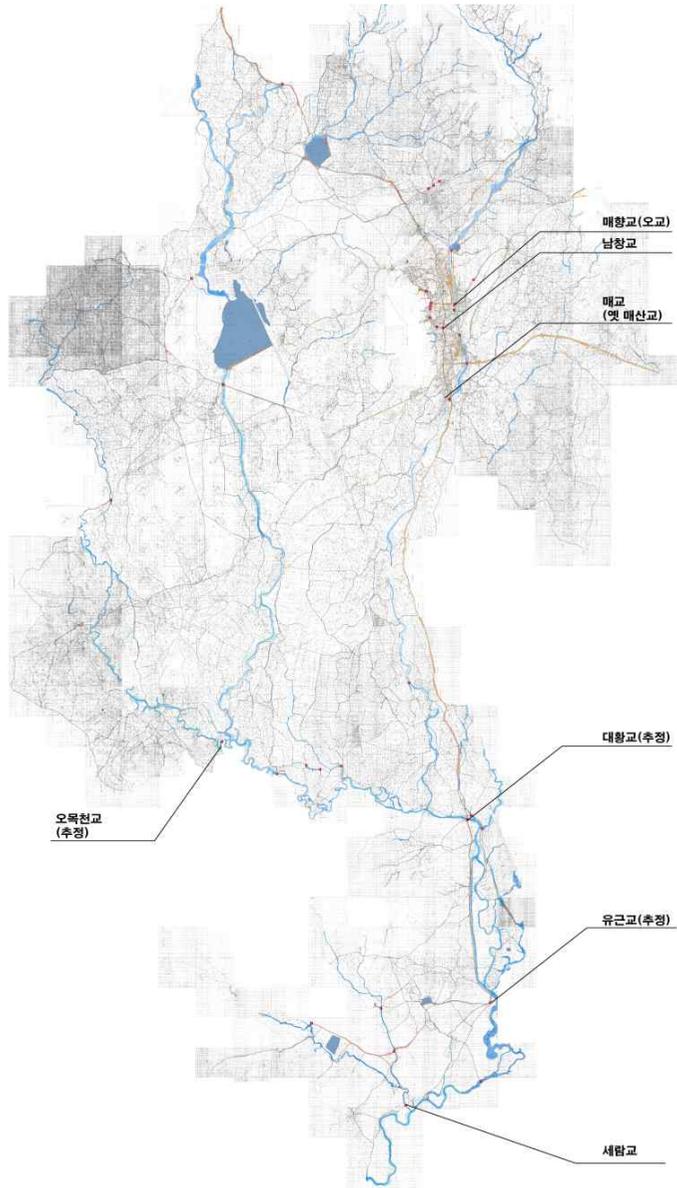


〈그림 4-3〉 「해동여지도」
수원부(1735)



〈그림 4-4〉 「해동지도」
수원부(1750년대)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대략 추정해본 다리의 위치이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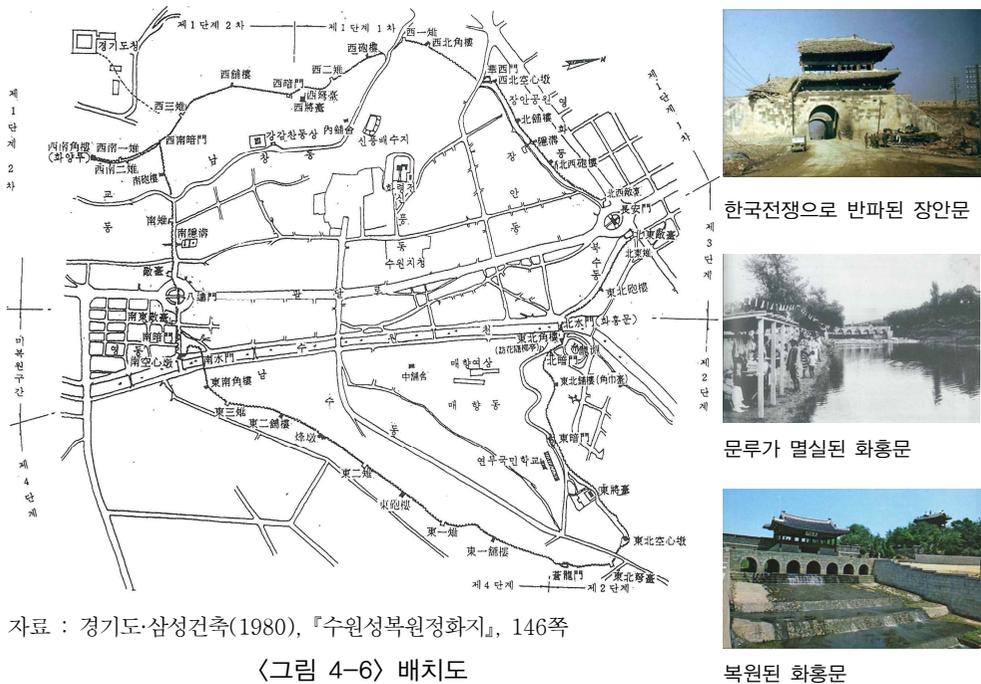
자료 : 지적원도

〈그림 4-5〉 「지적원도」에 표시한 주요 옛 다리 위치
(사료와 고지도로 추정)

제2절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복원사업

1. 복원정비사업의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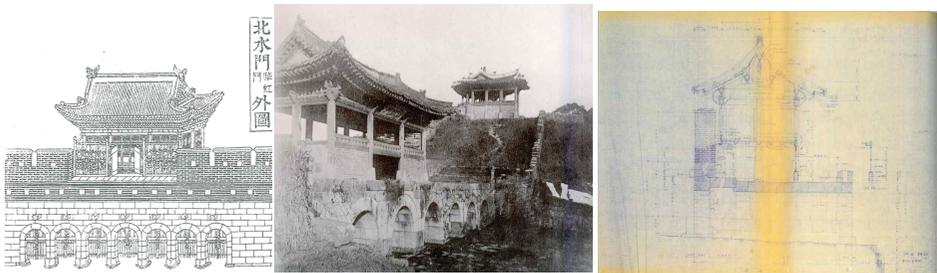
수원화성은 근대에 들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관리 소홀과 자연 재해 등으로 서서히 원형을 잃어갔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에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성문의 문루 등 수많은 건물과 성벽이 파괴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에 ‘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복원된다.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였으며, 1975~1978년까지 중요시설에 대한 보수·복원과 주변 정비를 시행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성곽과 성문, 암문, 장대, 각루, 공심돈, 포루(砲樓), 포루(鋪樓), 봉돈, 수문, 치성 등이 복원되었으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대로 두거나 성벽 형상을 복원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



자료 : 경기도·삼성건축(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146쪽

〈그림 4-6〉 배치도

수원화성 복원사업은 복원 기초자료가 풍부하여 1970년대 ‘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문화재복원정비사업 가운데 진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까지 잔존한 유구를 바탕으로 『화성성역의궤』, 일제강점기의 사진과 수리도면 등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복원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점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자료 : 화성성역의궤

〈그림 4-8〉 화홍문 안쪽

자료 :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그림 4-7〉 북수문외도

모습

기록

〈그림 4-9〉 화홍문 종단면도

화성이 대부분 복원된 이후에도, 옛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전략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30년까지 문화재 복원 및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공 공간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성내 중심영역인 화성행궁도 대부분 복원하였고, 최근에는 행궁 앞 이아 터에 대해서도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남지와 북지에 대한 복원도 계획되어 있다.

〈표 4-2〉 「수원화성 르네상스전략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면적	2.240km ² (城内 1.192, 城外 1.048)	
계획기간	999 ~ 2030 (목표년도)	

총사업비		18,390억원	기투자 7,315억원 향후투자 11,075억원
연차별 추진 계획	1단계 (1999~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복원 : 화성행궁 및 남수문 복원 등 137개 시설물 복원(완료 125개소, 추진중 9개소, 향후추진 3개소) ·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장안문앞 문화시설 조성 등 127개소 구축(완료 118개소, 추진중 8개소, 향후추진 1개소) · 공공 공간정비 : 소공원 및 주차장 정비 등 198개소 정비(완료 186개소, 추진중 9개소, 향후추진 3개소) 	462개 사업 9,026억원 (기투자 7,315억원)
	2단계 (2021~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복원 : 수문청 등 6개소 복원 ·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한옥체험관 등 6개소 정비 · 공공 공간정비 : 녹지체계구축사업 등 6개소 	18개 사업 2,126억원
	3단계 (2026~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복원 : 팔달문 성곽 및 시설물 등 19개소 복원 ·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문화컴플렉스 구축 등 4개소 정비 · 공공 공간정비 : 화성외곽 우회도로확장 등 6개소 정비 	36개 사업 7,238억원

2. 수원화성 수변시설의 복원

수원화성의 수체계와 관련된 주요 시설로는 화성 내 배수체계를 담당했던 수문, 은구와 여기에 연결된 성내 연못, 그리고 도시의 운영과 관계된 성 밖의 대규모 수리시설 등이 있다. 북수문과 남수문은 복원·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북·남은구와 북·남지는 복원되지 않았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복원되지 않은 북은구와 북지, 남은구와 상·하남지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수원화성의 배수체계를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북은구는 유구의 레벨이 기정비된 성벽과 차이가 있고, 남은구는 시가화로 성벽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 은구와 연결된 북지와 남지는 식수 저장,

배수량 조절, 경관 요소 등의 기능을 했으며, 복원시 화성의 경관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기에 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은구와 함께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옛 모습과 규모와 위치 등에 변화가 있으나 굳이 옛 모습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우와 퇴적 등에 의해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소성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과거와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표 4-3〉 물과 관련된 수원화성 시설물 현황과 복원 가능성

구분	시설	상태			복원		비고		
		현존		멸실	가능성	필요성			
		원형	변형						
배수 시설	수문	북수문(화홍문)	○			복원 완료	-	1975년 복원	
		남수문		○		복원 완료	-	2012년 복원	
	은구	북은구			○	上	上		1974년 유구 확인됨
		남은구				○	中	上	유구조사 필요
저수 시설	성내 연못	북지			○	上	上		지적 확인됨
		남지(상·하)				○	中	上	지적 불분명
		동지(상·하)				○	下	中	지적·흔적 미확인
	성의 제언	만석거		○			下	下	현존, 변형됨
		축만제		○			下	下	현존, 변형됨
		만년제				○	上	-	발굴연구 진행중
		남제				○	下	-	위치 불분명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단행본

- 수원시사편찬위원회(1996), 수원시사 上 : 역사속의 수원
수원시사편찬위원회(1997), 수원시사 中
수원시·수원문화원(1999), 수원지명총람
수원시(2000), 수원의 옛지도
수원시(2000),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경기문화재단(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화성시(2006),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 읍지
경기문화재단(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수원시사편찬위원회(2014), 수원시사17 수원화성
수원화성박물관(2014),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화성
김동욱(2002),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 학술지/학위논문

- 강인애(2011), 수체계로 본 수원화성 건설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9, No.4

■ 보고서

- 경기도·삼성건축(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2012), 만년제 2차 시·발굴조사, 화성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2015), 수원시 관내(화성 분천~송산) 국도
대체우회도로구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화성 만년제 하수문지-

■ 지도·지적자료

「지적원도」

「토지조사부」

「1:10,000 수치지형도」, 1917년

■ 사료

「수원군읍지」, 1899

「수원부읍지」, 18세기

「정조실록」

「화성지」, 1831

수원화성 옛 물길 수변시설 복원계획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ISBN 979-11-85686-68-4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